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茂長東學布告文

人君之德也最著者以其人倫也君者父子人倫之大者也君
仁居直文惠予善然以乃成家國能近于德之理今 聖
王仁孝慈愛神明聖府賢良正之有臣 瑬不佞陋則意
膏之化更累之內可謂指日而希今之 臣不思國因此
稀位按厥聰明阿會誦客更使之士馬之改言正有
之匪徒內而彌固之才外多害虐之官人心之目言
入之亦生之榮出身保軀之東君此在肆肆其相
君臣之義父子之倫上下之系遠懷而希冀天祐子曰何
不依國乃滅亡凡今之世有其新舊言更日公卿以下至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KM0000004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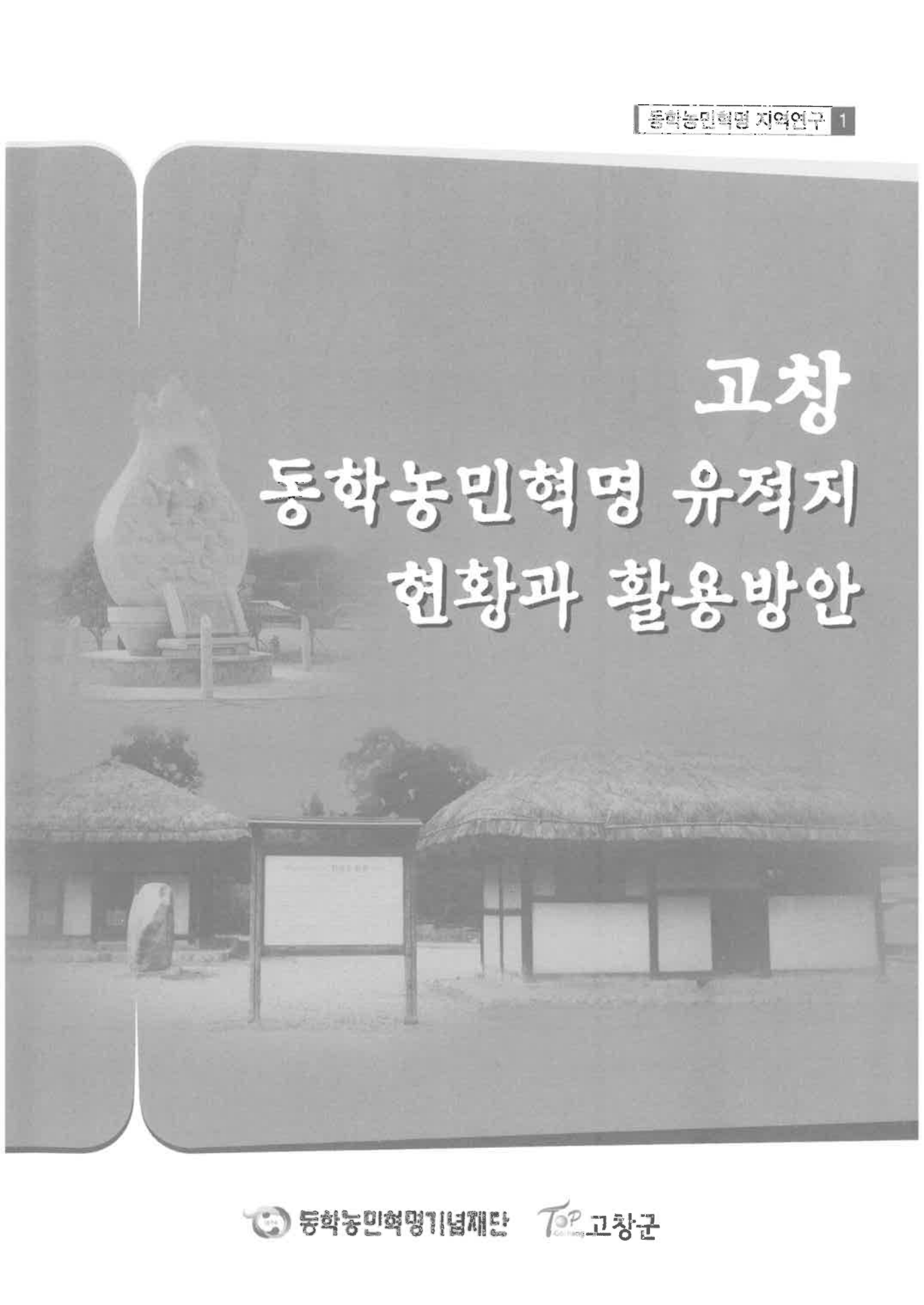
비매품



9 788994 580135
ISBN 978-89-94580-13-5

911
동92

KM49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발 간 사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사적으로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94년 조선전역을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관련유적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 고창에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인 전봉준장군의 생가터가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무장기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봉준장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지도했던 손화중장군의 도소와 피체지, 동학농민군들이 점령했던 고창읍성, 무장현 관아와 읍성 등 실로 많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창군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와 기념시설에 대한 정비계획과 조성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고창군은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창에서 가장 중요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전봉준생가와 무장기포지에 대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비방향을 도면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여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와 종합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 동학농민혁명 지역연구 1』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전봉준생가와 무장기포지를 비롯한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올바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12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영석

고창군수 이강수

목 차

발간사	01
목 차	03
화 보	04

주제별 연구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연구	15
-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전봉준생가 복원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	41
-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기념시설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	71
- 배승현 (구상조각회 운영위원)	

주제별 토론

사회: 변주승 (전주대 교수)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연구」에 대한 토론	101
「전봉준생가 복원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106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기념시설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114

종합토론

토론좌장: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	12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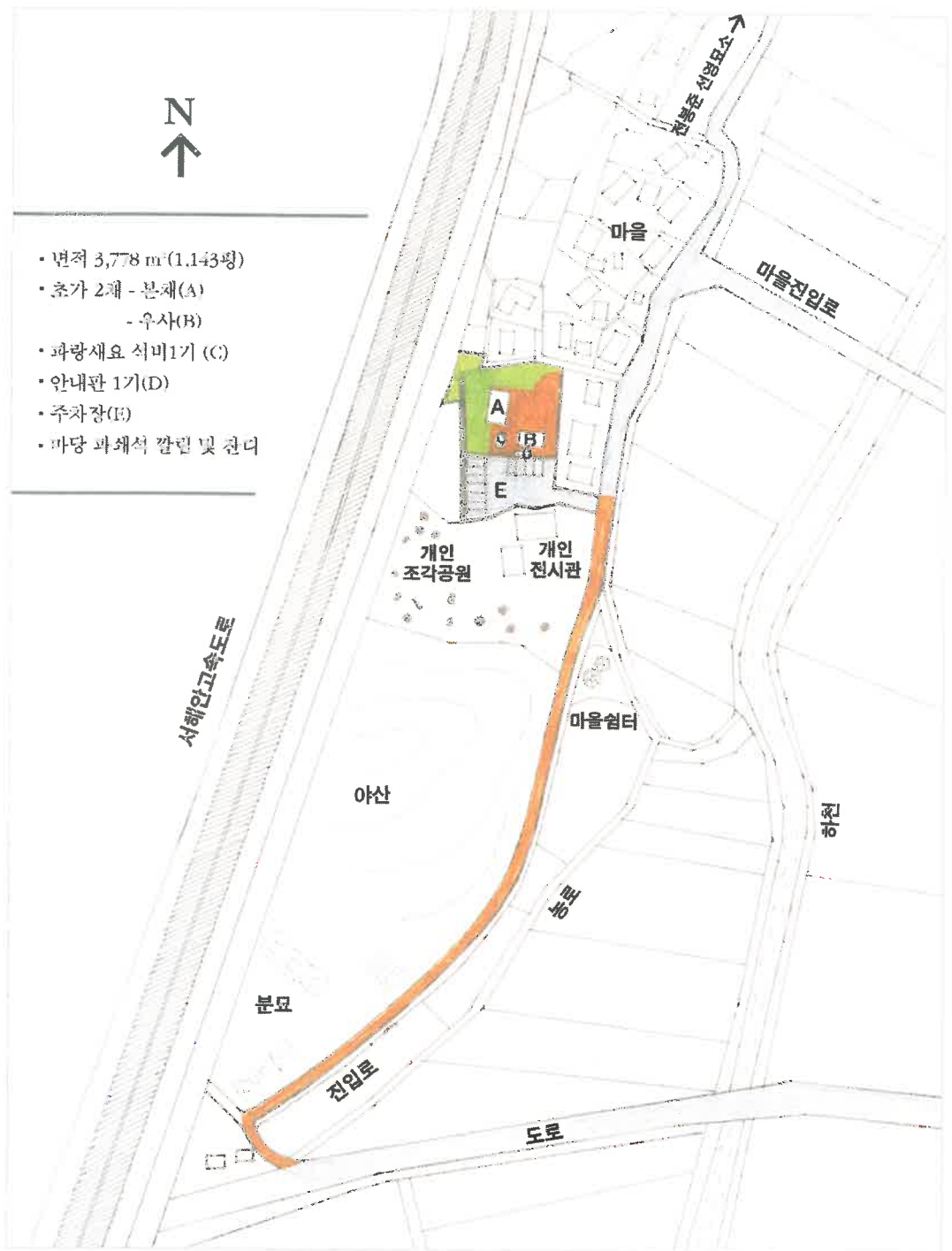
토론: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남해경 (전북대 교수)
배승현 (구상조각회 운영위원)
신안준 (충청대 교수)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전봉준생가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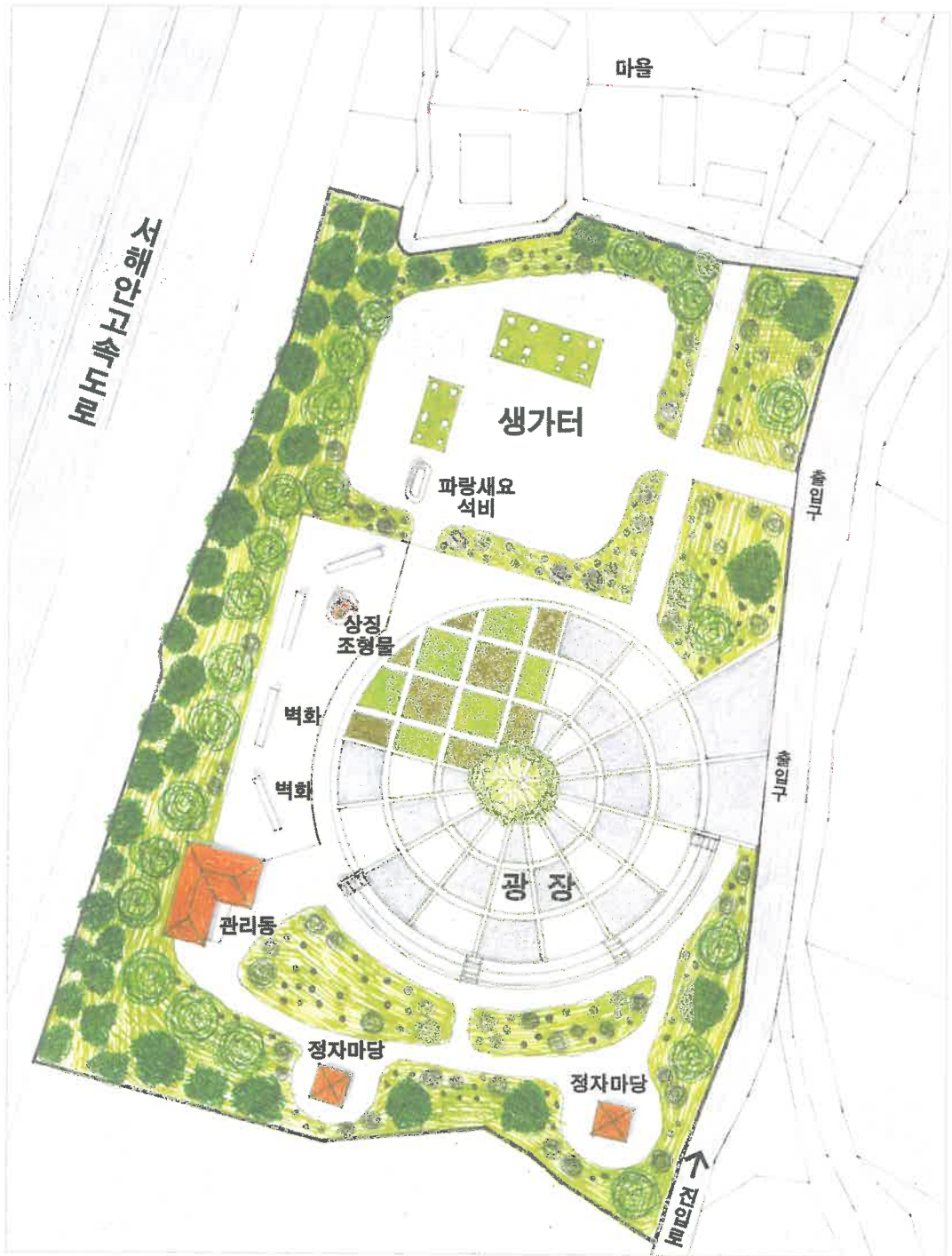
전봉준생가 측면



전봉준생가 현황도



전봉준생가 환경개선 배치도



전봉준생가 환경개선 배치도(확대)



무장기포지 1



무장기포지 2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기존시설물 배치 현황도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개선계획도 A안(기념공원 기존부지 내)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개선계획도 B안기념공원 기존부지 내)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연구**

1894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연구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II.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추이와 문제점
 -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추이
 - 유적 복원과 기념조형물의 문제와 과제
- III.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 IV. 맺음말

I. 머리말

역사는 죽은 자들이 살아 있을 때 그때 거기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했던 행위와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로 끌어내어 지금 여기의 산 자들과 맺는 관계이다. 이 땅 곳곳마다 역사의 현장 아닌 곳이 드물지만, 과거의 객관적 사실 모두가 역사로 기억되지 않듯이 역사의 현장 모두가 유적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현장은 반복하여 기억하고 기념할 때 유적지가 된다. 기억되지 못하고 재구성되지 못한 현장은 유적지로 기념되지 못한다. 역사 유적지는 재구성된 역사의 현장이다.

역사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든가, 어느 곳, 왜 그곳에서 그 일이 있었든 일인가, 누가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질문의 대상이다. 1894년 농민전쟁은 시간으로는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에서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한 제1차 농민전쟁, 전주성을 점령

한 뒤 농민자치 시기인 집강소시기, 9월부터 다시 전개된 2차 농민전쟁을 거치면서 1년 내내 계속되었으며, 1895년까지 이어졌다. 공간으로는 전라도, 충청도 뿐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황해도 지역에서도 전개되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전국 규모로 일어난 가장 큰 민중투쟁이었으며 변혁운동이었다.

1894년 농민전쟁 역사현장에는 곳곳에 기념물들이 세워졌고, 유적지 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조형물도 역사에 대한 해석과 재구성의 결과물이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설립 주체의 역사관과 의도에 따라 조형물의 형상과 내용이 달랐다. 따라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조형물 또한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물을 필요가 있다. 농민전쟁 역사 현장에 세워진 기념조형물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곳곳에 세워진 기념조형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고창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용방안에 시사점을 삼아보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추이와 문제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5년에 조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시설은 모두 130개소였다. 그 가운데 전북이 62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전남 27개소, 경북 15개소, 충남 10개소, 충북 9개소, 강원 4개소, 경남 2개소, 울산 1개소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기념시설 실태 조사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5년). 2009년 말 조사 결과는 205곳 이었다(신순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 〈〈동학농민혁명의 勃發과 무장기포의 意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창군, 2010년). 205곳에서 기념물과 기념시설은 53개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 전남 2, 전북 31, 충남 4, 충북 4, 경남 2, 경북 4, 강원도 4 곳이다. 이 가운데 먼저 중요한 조형물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고, 유적지와 조형물의 문제를 들어 보자.

1)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형물의 추이

(1) 1963년, 황토재〈갑오동학혁명기념탑〉

황토재는 지금 탑이 세워져 있는 산등성이 꼭대기가 아니라 탑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갑오동학혁명기념탑(1963)

사이로 난 고개였다. 이 일대에서 농민군은 1894년 4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전라 감영군과 보부상으로 이루어진 관군과 맞붙어 큰 승리를 거두었다

1963년 정부 주도로 8월 25일 전주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에 기공하여 그해 10월 3일 세운 탑이다. 이 탑은 농민군 투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최초의 조형물이며, 농민군 승리를 상징하는 대표 조형물이 되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은 수직의 화강암 기둥 윗부분에 전서체로 ‘제폭구민 보국안민’ 여덟글자를 새겼다. 양 옆 보조 석물에는 앞쪽에 비문과 농민군 부조를 새겼고, 뒤쪽에 농민군 민요인 ‘새야 새야’와 ‘가보세’를 새겼다. 전체로 보아 중앙탑과 좌우 보조 석물 사이를 떼어 놓아 모양이 시원하고 수수하다. 그러나 보조 석물 좌우 대칭 중심에 자리잡은 중앙의 높고 육중한 화강암 수직 기둥은 권위적이고 위압스런 기념 조형탑의 전형을 보여준다. 전서로 새긴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保國安民)’ 구호는 가까이 갈수록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 보아야 할 자리에 새겨져 있고, ‘보’자는 ‘보국안민’ 할 때 쓰는 ‘輔’가 아니라 ‘保’로 잘못 새겼다.

황토재 싸움은 농민군이 전라도 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러한 기념 조형물 앞에 제단이 놓여 있는 것도 상징성이 떨어진다. 농민군은 사람을 위아래 양반 상놈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상하 수직의 신분 질서를 깨트리고 서로 대등한 수평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또한 농민전쟁은 기존의 질서와 지배의 균형을 깨고 세상을 바꾸려는 밑으로부터 일어난 투쟁이었다. 그렇다면 조형물도 좌우 대칭의 중심에 수직으로

우람하게 선 조형의 상보다 수평의 형상으로 농민군의 뜻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왼쪽 날개 돌에 새겨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명문’은 갑오혁명기념사업협회장 문학박사 감상기가 지었다. 내용은 갑오동학혁명이 ‘동학교문의 대혁명이 전봉준 선생의 영도아래에서’ 일어났으며 ‘국민생활의 근대화’를 촉진시켰다고 하여 전봉준 중심의 영웅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5.16군사쿠테타 이후 ‘근대화론’의 영향을 담고 있다. 또한 농민군이 내걸었던 ‘척양척왜’의 구호에서 ‘척양’은 빼고 ‘척왜’만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세워진 우금치 ‘동학혁명군위령탑’만큼 경직되지는 않았으나 조형의 형상이나 비문의 내용에서 다분히 국가주의적 권위가 풍겨나고 있다.

그래도 날개 돌 뒷면에 새긴 ‘새야 새야’는 그 앞에서 가사를 따라 노래를 부르고,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를 낭송하면서 농민전쟁의 역사를 되새겨 보게 한다.

(2) 1973년, 우금치 〈동학혁명군위령탑〉



우금치 동학혁명군위령탑(1973)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우금치에 1973년 11월 11일 ‘동학혁명군위령탑 건립준비위원회’가 위령탑을 세웠다. 당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지금의 고개 넘어 쪽이 아니라, 위령탑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1894년 10월 23일부터 25일,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농민군은 수많은 목숨을 잃으면서 경군·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비문의 형상은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보다도 더 숨막힐 듯한 좌우 대칭의 화강암 이중 받침대 위에 육중한 수직의 기둥이 우뚝 솟은 모양이다. 이러한 탑의 형태는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킨다. 성기 모양으로 형상화된 남성중심주의가 국가주의 권위주의와 결합하여 은연중에 수직의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층 받침돌 중앙 손이 닿는 위치에 비문이 자리 잡고 있어 위령탑의 중심을 이룬다.

비문 내용에 탑 건립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있다.

“님 들이 가신지 80년. 5.16혁명 이래의 신생조국이 새삼 동학혁명군의 순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면서 빛나는 10월 유신의 한 돌을 보내게 된 만큼 우리 모두가 피어린 이 언덕에 잠든 그 님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이 탑을 세우노니 오가는 천만대의 후손들이여! 그 위대한 혁명정신을 영원무궁토록 이어받아 힘차게 선양하라.....”

‘동학혁명’을 끝어다 박정희 정권이 그 역사를 계승한 것처럼 합리화하고, 군사독재의 시작인 ‘5.16혁명’과 폭압적인 ‘10월유신’을 정당화하였다.

‘동학혁명군’의 혁명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곧 10월 유신에 대한 부정이며, 농민군의 저항정신을 순국정신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의식을 강조하였다.

희생당한 ‘동학혁명군’을 대상으로 탑을 세웠으며 목적은 유신체제에 국민들을 순응시키려는 것이었다.

농민군이 어떠한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싸웠는지, 무엇을 지향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반농민군의 무자비한 폭력과 학살도 드러나 있지 않다. 지금 위령탑 비문에 쓰여 있던 ‘5.16혁명’ ‘10월유신’ ‘박정희’ 글귀 부분은 알고 읽지 않으면 뭐라고 써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희미한 흔적만 남았다. 수많은 답사객들이 돌맹이로 수없이 쪼아 그렇게 되었다. 역사는 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돌로도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다. 돌맹이로 쓴 ‘새로운 역사’ 때문에 이 비문은 두 고두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우금치 동학혁명군위령탑 비문

(3) 1987년, 황토현 전적기념관 <전봉준 장군 동상>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전두환이 같은 전(全)씨라 전봉준장군 유적지정화를 위선(爲先) 사업으로 설정한 측면도 있

있겠지만, 정권이 역사를 통제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의 봄'에 김대중 씨를 초청하여 강연을 했다는 것을 트집 잡아 지역 민간단체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강제 해체시켰다.

'1894년 농민전쟁'을 기념하는 지역 민간단체의 자율 활동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활성화되지 않도록 관주도로 유적정화사업을 벌여 저항과 변혁의 역사를 체제내화하려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초 영국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다. 전선에서 전사한 지역민을 추모하려고 지방마다 자체적으로 거리에 작은 임시 사당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소형 기념물들은 거리의 사당에서 비판적이거나 저항적인 정서가 표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규모 공공기념관으로 바뀌었다.

기념관 바깥 쪽 문을 넘어 들어가면 마당 왼쪽에 1987년 10월 1일자로 세운 '황토현전적 지정화기념비'가 서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역사 유적지를 정화하였다는 비문 ㄲ트머리의 이름 석 자는 돌로 쥘어져 있다. 비문이 깨어져 다시 세운 비문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기념관 뒤편에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서 있다. 전봉준 장군 동상 머리는 맨상투다.

'압송당하는 전봉준'으로 알려진 사진을 따라 그렇게 만들었을 터이다. 어떤 상황의 사진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그 사진은 잡혀 '죄수'가 되었을 때 찍혔기 때문에 맨상투다.

그런데 동상의 머리를 맨상투로 만들었으니 몸체는 격문을 들고 외치는 투쟁에 앞장선 농민군 지도자고 머리는 죄수가 된 꼴이다.



황토현전적지 전봉준 장군 동상(1987)

5.6미터 되는 높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청동으로 주조하여 만든 2.7미터 높이의 전봉준 동상은 오른손을 불끈 치든 모습으로 우람하게 우뚝 서 있다. 동상 뒤편에서 좌우로 날개처럼 동상을 감싸고 있는 농민군 부조는 높이가 동상 받침대와 비슷하다. 장군의 동상이 농민군 부조를 밟고 있는 꼴로 보인다. 전체로 보아 스스로가

농민이었으며 농촌 지식인으로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했고, 결국 사형을 당한 녹두장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농민군 모습 어디에도 죽창과 농기구를 무기로 들고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비장한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동상 받침대 뒤편에는 시행청이 ‘전라북도’이고, 조각한 사람이 김경승(金景承)이며, 1987년 10월 1일 완공했음을 알려주는 까만 표지판이 붙어 있다.

김경승은 1915년에 태어나 1992년에 죽었는데, 동상제작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그는 1934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한 뒤, 1937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입선하였다.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연이어 선전에서 입선 특선을 하였고 추천 작가가 되기도 하였다. 해방 후 만들어진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김경승은 형 인승과 함께 친일 작가로 분류되었으나 이화여대 홍익대 교수를 지내면서 각종 기념조형물 제작을 독차지하였고 오랫동안 국전심사 위원에 심사위원장까지 거쳤다.

1982년 전두환 정권 때는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그의 경력에 걸맞게 그가 만든 동상의 주인공들도 손꼽히는 위인들이었다. 남산 공원의 김유신 장군상, 안중근 의사상, 김구 선생상, 도산공원의 안창호 선생상,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부산 용두산 공원, 통영 남망산 공원의 이충무공 동상을 그가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4월 혁명 때 무너진 이승만 동상,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 친일 행적이 있는 고려대 김성수 동상과 이화여대 김활란 동상, 인천 송도중학교의 윤치호 동상도 그가 만든 것들이다.

동상 만드는 재주는 뛰어났다고 하나, 그가 독차지하다시피하여 만든 동상들은 인물들의 행적과 관계없이 모두가 비슷비슷한 형상이다.

김경승에게는 엄혹한 우리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려 온몸을 던져본 삶과 사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지냈던 흔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에게는 1894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농민군의 투쟁의지, 농민전쟁의 의미,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형상화 할 수 있는 실천과 경험이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권력과 김경승의 권위는 쉽게 손잡을 수 있었으나, 그들에 의해 제작된 동상에는 역사는 사라지고 그들을 닮은 형체만 남아 있다.

(4) 1994년,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봉준 같은 농민군 지도자는 기록에도 남아 있고 문제가 많으나 옛집도 복원되고 동상이나 기념물도 세워졌다. 그러나 농민전쟁 뿐 아니라 어떤 역사도 지도자들만이 싸워 이룬 것이 아니다. 이름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름은 있으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중이 노동과 투쟁으로 이루어온 것이다.

1894년 농민전쟁 역사에서 그렇게 이름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농민군의 영혼과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려고 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주축이 되어 1994년 9월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세웠다.

사발통문이 발견된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녹두회관 앞에 세워졌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893년 ‘혁명모의’를 했던 주산마을을 들리려면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했다. 대형버스를 타고 외길을 들어가다 작은 차라도 마주치면 한없이 ‘빠구, 오라이’를 해대야만 했다. 농민전쟁 100주년 즈음에 2차선으로 포장되었던가.

이제는 주산마을 가기가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 고부관아가 있던 고부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정읍을 향해 1.9Km쯤 가다 입석리에서 오른쪽 중앙교회 가는 길을 따라 2.3Km 더 가면 주산마을이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관 주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운 것이다. 여기 세워진 조형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지 않다.

가운데 주탑은 ‘無名東學農民軍慰靈塔’이라고 이름을 새긴 받침대 위 네모난 화강암 판에 쓰러진 동료들을 일으켜 감싸 안고 죽창 들고 외치는 농민군 모습을 알게 파서 새겼다.

그림의 이미지는 80년대 민중판화와 걸개그림을 많이 따왔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이 본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격화 되기 바로 전, 6월 9일 최루탄 맞아 피흘리며 쓰러진 이한열 학생을 일으켜 안은 동료가 전두환 정권을 향해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진, 그것을 걸개그림으로 만들어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최병수의 ‘한열이를 살려내라’가 연상된다. 토막토막 따로 세운 1-2미터 크기의 32개 보조탑에는 ‘밥이 하늘이다’를 상징하는 밥그릇, 무명

농민군의 얼굴, 농민들이 무기로 썼던 농기구를 새겼다. 화강암 돌기둥 위, 아래, 중간에 새긴 농민군 머리는 표정과 거칠기를 달리하여 삶과 죽음을 표현하였다.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은 주탑을 중심으로 보조탑들 사이사이에 공간을 둔 것은 그 사이로 가까이 다가가 돌아다니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안아도 보고 손으로 쓰다듬어 보라고 그런 것이다. 멀리 밀어내어 쳐다 보기만 하는 먼 역사가 아니라 조형물로 끌어 당겨 가까운 역사로 느낄 수 있게 한 배려이다.

그런데 주탑의 액자들 같은 직사각형 선이 답답하고, 보조탑 어느 기둥에도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은 없다. 모두 어른 남자 머리뿐이다. 남성중심, 어른 중심의 시각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오른쪽 한 귀퉁이에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건립기념비’가 외파로 세워져 있다.

비문은 “구월봉기는 일본군의 궁성침입으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자 일본군을 무찌르기 위한 민족적인 거사였으며 나아가 민족의 自衛를 위한 민중의 항쟁이었다. 甲午先烈들은 그들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限을 품은 채 匪徒의 누명을 쓰고 방방곡곡 전장터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처절하게 쓰러져 갔다.”는 내용으로 반침략의 성격과 일본군에 의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

9월 봉기 이후의 2차 농민전쟁 또한 반봉건적 성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며, 농민군을 탄압하고 학살한 반농민군 세력에는 일본군뿐만 아니라 정부군과 각 지방의 보수 민보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빼 놓은 것이다.

부족한 점은 있으나, ‘1894년 농민전쟁’ 역사 조형물이 1963년 황토현에 세워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에서 시작하여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했다. 또 다시 새롭게 만든다면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나은 형상으로 역사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5) 2000년대,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완주군과 함께 역사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는 삼례 역사광장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시설 중 가장 뛰어난 조형미를 지닌 기념시설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5년에 펴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기념시설 실태 조사서>>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의 역사적 정신을 잘 표현해 냈으며, 조형물과 조경의 조화 등이 잘 이루어져 삼례봉기의 체험적 공간을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곳의 기념비 및 조형물은 한글만을 사용하여 내용을 충분히 잘 전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잘 맞추고 있음”, “다른 지역 기념시설 조성의 모범으로 삼을 만함”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광장 입구에서 볼 때 건너편 왼쪽에 있는 ‘대동의 장’은 굽은 팔뚝으로 움켜쥔 ‘쇠스랑’과 돌레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다.

“민초 농민들의 뜻이 하나로 결집된 의지의 기치, 또는 이상이 꽃대, 힘을 상징”하며 “누구든 소망을 담은 돌을 얹어 놓는 행위를 통한 무한다수 공동제작의 개념, 참여의식의 발현에 의한 지속적인 확산과 계승을 의도”하고 있다. 돌무더기가 무한다수를 공동제작에 참가시켜 참여의식을 높이려고 한 조형의 발상은 높이 살만하다. 그리고 ‘대동의 장’의 돌무더기가 지속적인 확산과 계승을 의도한 미완의 조형물이다. 미완의 조형물을 완성해 나가고 역사에 주체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다는 뜻을 살릴 필요가 있다. 쇠스랑 조형물 오른쪽, 광장 중앙 건너편에 있는 ‘추념의 장’ 조형물은 “이름 없이 스러져간 농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념하며 자아 존재와 역사와 우주, 즉 ‘나’ ‘동학농민군상’ ‘하늘’이 거울에 중첩 반추되는 영상 속에서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핵심인 인내천 사상을 인과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사유의 장으로서 경건의 돔”으로 세운 것이다.” 이상세계에서 서로 일체화로 이루어진 동학농민군들의 역동적 모습을 표현하여 현실에서 이르지 못한 그들의 한을 달래는 의미와 함께, 독립적 공간을 형상화하면서도 동시에 대기와 빛과 시야가 통과되어 주변 환경과 유기적 일체 공간을 이루는 투조 구조는 산화한 농민군들의 영령들에게 부여하는 완전한 자유의 상징 “이라고 한다.



삼례역사광장 추념의 장

추상적으로 조각된 농민군 군상이 중앙의 거울에 비추고 그 위에 내 얼굴을 비추어 일체감을 느끼면서 추념하도록 한 의도다. 이 조형물의 핵심은 거울이다. 거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돌을 던졌는지 금이 갔다가, 아예 조각조각 부서졌다.

지금은 깨어지지 않도록 얼굴이 비칠

만한 까만 돌로 바꾸었지만 농민군 군상과 함께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만큼 뚜렷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대동의 장’과 ‘추념의 장’의 표현 양식인 구체와 추상, 찰돌과 조각난 거울,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 조직표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역사광장과 조형물들이 ‘다른 지역 기념 시설 조성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 시설 중 가장 뛰어난 조형미’를 가졌는지는 관점과 안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삼례역사광장은 광장이라는 공간의 조형물이 차지하고 있는 동선이 사람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지 못하고, 대동의 장, 추념의 장 조형물들이 동학농민혁명 일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삼례봉기’의 특성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2) 유적 복원과 기념조형물의 문제와 과제

(1) 조형물의 형상과 조형성



4월학생혁명기념탑

역사 유적지에 세워 놓은 기념조형물은 설명문보다 형상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역사의 상징이다. 형태와 모양이 역사의 상상력을 촉발하며 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기억을 특정한 형상으로 고정시키기도 한다.

역사 기념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문제가 많은 것이 수직의 높은 탑과 좌대 위의 동상

이다. 우리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근대적 수직탑의 원형은 1963년 세워진 ‘4월학생혁명기념탑’이다. 맥아더, 이승만 동상을 세운 김경승이 세웠다. 대칭형 부조벽 중간에 세 기둥의 수직탑으로 이루어졌다. 전북 정읍시 쌍암동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이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백산창의비’는 ‘4월학생혁명기념탑’을 직접 모방한 형태이다.

좌우 균형의 받침대 위에 세운 높은 수직 기둥으로 이루어진 탑은 1800년대 유럽 군국주의의 산물로서 국가주의, 남성중심주의, 권위주의의 형상이다.



백산창의비



삼례광장 동학농민혁명봉기비

‘받침대 위에 있는 사물’인 전통적인 기념물 형태가 파시즘이 선전 양식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보기도 한다. 수직의 탑은 파시즘과 전쟁, 폭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1894년 농민전쟁 유적지에는 황토재의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우금치의 ‘동학혁명군위령탑’ 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 ‘동학농민혁명모의탑’, 전북 정읍시 쌍암동 ‘동학농민혁명 100주년기념탑’,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백산창의비’,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황룡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동학농민혁명기념탑’,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 경남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성 ‘동학혁명군위령탑’,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동학혁명위령탑’이 있다. 이 가운데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빼면 규모나 형태, 형상이 다르긴 해도 대부분 수직의 탑으로 이루어졌다.

삼례역사광장에는 2003년 10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에서 세운 ‘동학농민혁명봉기비’가 있다. 커다란 돌덩이 기둥에 비 이름 새긴 것 말고 어떠한 상징이 담겨있는지 알 수 없다. 엄격한 좌우 균형의 받침대 위에 세워진

반듯한 직각의 기둥형태는 아니지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성기의 형상을 담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남근석’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던 시대의 ‘좃바위’와 비슷한 형상이다.

돌기둥 뒤편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고, 받침돌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의 조직체계와 간부 이름을 새겨 놓았다. 단체 사무실 벽이나 소개서에나 들어 있음직한 조직표와 이름을 영구불멸의 욕망으로 새겨 놓았을 것이다. 사무실 벽에 걸린 조직 표에도 이름까지 죽 써놓은 경우는 드물다. 아무튼 우리는 기념비 아래에 세운 단체의 조직표와 명단이 새겨진 또 하나의 ‘기념할 만한’ 조형물을 가지게 되었다.

(2) 역사의 사실과 현장성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에는 1981년 10월 전주청년회의소와 풍남청년회의소가 세운 전봉준 장군 동상, 1993년 5월 김개남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세운 김개남 장군 추모비, 1998년 12월 손화중 장군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세운 손화중 장군 추모비가 있다. 그런데 덕진공원은 1894년 농민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역사의 사실과 무관한 곳에 조형물이 건립되면 역사의 현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주에는 덕진공원이 아니라 농민전쟁의 유적지로 기념되어야 할 역사의 현장이 적지 않다.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우금치에 1973년 11월 11일 ‘동학혁명군위령탑 건립준비위원회’가 세운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있다. 당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지금의 고개 넘어 쪽이 아니라, 위령탑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이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진 정읍시



전봉준 장군 고택

국립공원 내장산 입구의 전봉준 공원도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다. 1997년 정읍시에서 조성하였다.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에는 전봉준 장군 고택이 있다. 1894년 고부봉기가 일어날 때까지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집이다. 안핵사 이용대가 불질렀으나 다시 보수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전봉준 장군 고택 주변과 단소성역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고택 주변의 집을 헐어내고 잔디밭을 꾸몄다. 잔디밭 밖으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

하였다. 고택 마당에서 잔디밭은 바로 이어진다. 너른 잔디밭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고택밖에 기념관을 세우고 잔디밭을 꾸미는 것과 고택 마당과 이어지는 잔디밭은 또 다른 문제다. 고택은 고택답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전북 정읍시 고부면 주산마을 입구에는 1969년 4월 후손들이 주도해서 만든 ‘동학혁명모의탑’이 있다. 이 탑을 마을 안쪽에 세웠다가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겼다. 처음 만들 때는 받침돌이 4단이었는데 옮기면서 5단으로 높였다. 새로 끼워 넣은 받침돌에 부조로 무궁화 꽃을 새겼다. 1894년 ‘동학혁명’과 무궁화 꽃은 별 관련이 없다.

(3) 공간 배치와 교육 효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諭示)로 세워진 황토현전적지 기념관은 아산 현충사 같은 사당을 축소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마당 중간에 있는 담을 지나 안쪽 오른쪽에 전쟁유물 전시장이 있고, 왼쪽 제민당에는 위압적인 양반같은 전봉준 영정이 보관되었다. 맨 뒤쪽에 전봉준 장군 동상 있다. 사당 형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으로 걸

맞지 않다. 공간 배치도 전봉준 장군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동상이나 영정이 전봉준 장군을 제대로 형상화하지 못하였다.

2004년 개관한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시관과 교육관으로 이루어졌다. 전시관 벽면은 사진과 빼곡한 설명문으로 채워져 있다. 답사객들의 반응은 전시관이 확대 복사한 책 읽으라는 공간 같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2층 복도를 따라 벽에는 이 광택의 〈우리식대로 그린 동학농민전쟁사〉를 확대 복사하여 여러 폭으로 나누어 걸어놓고 있다. 원본 그림의 모양은 어떠한지,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설명도 없다. 복도의 폭에 맞추어 보기 편하게 전시해야 하는데, 좁은 복도에 그림이 커서 보기 불편하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은 기둥의 부조도 마찬가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사진과 설명문은

안내문 형태의 작은 책자로 나누어 주고 기념관에 맞게 전시를 하는 편이 탐방객들을 현하게 할 것이다.

전시도 공간에 맞는 크기로 배치해야 하며, 전시물이 원본인지 사본인지도 밝혀 주어야 한다.

삼례봉기 역사광장에는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둘레에 광장 표지석, 부조물 5점, 봉기비, 상징 조형물 3점, 표지 명문석 4점의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조형물들이 발길이 이어지는 동선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질 않아 어느 곳으로 발걸음을 떼어야 할지 주춤하게 된다. 조형물들이 사람들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



삼례역사광장 입구

끌어 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처음 광장을 설치할 때 기획한 공간 배치 밖에 새로운 조형물들을 편의에 따라 세우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토막토막 떨어져 산만한 느낌을 준다. 중앙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에는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을 설명과 그림으로 새긴 4각 기둥의 부조물 5개가 세워져 있다. 기둥의 형상과 새겨진 내용과 그림은 괜찮다. 그런데 한 기둥마다 사방에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을 그림과 글로 새겨 놓았다. 입구에서부터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보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있는 석조 조형물 4점이 있다. 조형물의 형상도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특성이 전혀 없으며, 일본군의 침입과 쫓기는 민중이 돋보이게 새겨져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걸맞지 않는 조형물이다.

역사의 현장을 찾는 중요한 까닭은 역사를 좀 더 가까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느끼면서 배우려는 것이다. 유적지 복원이나 기념사업, 기념 조형물 건립의 내용은 물론 유적지나 기념 조형물의 공간 배치도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고창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이 출생하였고, 호남 지방 동학조직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손화중의 무장포가 있었던 곳이며,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차 혁명기의 무장기포가 일어난 곳이다. 또한 고창은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둔 농민군이 남진하면서 영향력과 세력을 키웠던 곳이다.

고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대표적인 유적지는 전봉준 생가터, 정백현 생가터, 손화중 도소 터, 손화중 피체지, 여시피봉, 선운산 도솔암마애불, 무장기포지, 무장동헌과 읍성, 홍덕동헌, 고창읍성이 있다.

- 전봉준 생가 및 생가마을(고창읍 죽림리 당촌마을)
- 손화중 도소(성송면 괴치리 276-1)
- 정백현 생가터(공음면 예전리 상례마을)
- 선운산 도솔암마애불(아산면 삼인리 618)
-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
- 여시피봉(무장면 신촌리 왕제산)
- 홍성 동헌(홍덕면 홍덕리 428-3)
- 고창읍성(고창읍 읍내리 산 9)
- 손화중 피체지(수강산 산당, 부안면 송현리 120)
- 무장현 관아와 읍성(무장면 성내리 149-1)



손화중 거소 안내판

역사 유적지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역사기행의 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접근이 편하고 안내

가 친절해야 한다.

그러려면 유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자세한 안내 지도와 안내문이 필요하다. 전봉준 생가터, 선운산 도솔암마애불, 무장기포지, 고창읍성, 무장현관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는 사람들의 안내를 받지 않으면 찾아가기 힘든 형편이다.

보물 1200호로 지정된 선운사도솔암마애불,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35호인 무장동헌,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77호인 흥덕동헌, 사적 145호 고창읍성, 사적 346호 무장읍성은 동학농민혁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안내나 설명이 없다.

정백현 생가터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손화중의 거소(居所) 터에 세워진 안내판은 함석담에 막혀 있어 끝자락만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전봉준 생가터에는 추가로 안채와 행랑채를 복원해 놓았으나, 전봉준 생가가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특성도 없다.

생가 터 안내문에도 왜 그런 형태로 복원했는지를 알려주는 설명이 없다. 언제 복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장군 생가터 안내문’ 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은 1855년 12월 3일 이곳 고창읍 죽림리 63번지(당촌마을)에서 서당 훈장을 하던 전창혁(본관 천안)의 아들로 태어나 14세 무렵까지 살았다.

당시엔 서당, 안채, 사랑채 등이 있었으나 동학농민혁명기간중 모두 소실되었다. 그는 오척단신의 작은 체구 때문에 ‘녹두라는 별명을 얻어 일명 녹두장군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전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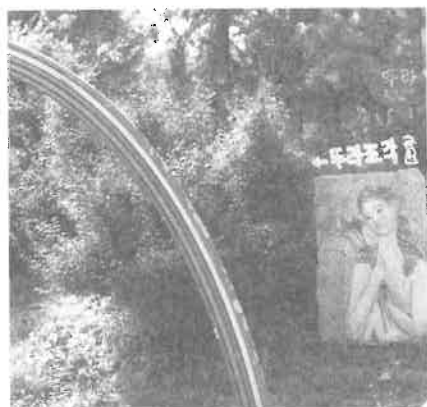


전봉준 생가터와 안내문



전봉준 생가터 파랑새노래비 뒷면

준 장군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는 1894년 3월 20일(음력)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무장기포지(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 4,000여명의 농민군이 모인 가운데 갑오동학농민혁명운동 최초의 봉기선언문인 창의문(倡義文)을 발표하고 조직적인 항쟁에 들어감으로써 전국농민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봉준 생가터 옆 조각공원



전봉준 생가터 옆 전봉준장군 생활전시관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적 지배세력에 의한 수탈과 억압에 반대한 민족운동이며 제국주의적 외세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으로 갑오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세운 최초의 민중항쟁이었다.

확실치 않을 경우 경우 서툰 복원보다는 추상화된 조형물이나 전봉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현대식 기념시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마당이 같은 평면으로 이어지는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거슬린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노래비 뒷면에는 기증한 천안전씨 대종회의 회장, 사무국장, 고창종친회장, 계손, 제작의 이름이 큰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경우 역사기행 참가자들은 금방 자기이름 알리고 생색내려고 세웠다는 반응을 보인다. 역사현장에 세워진 조형물에는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옆에 있는 사설 조각공원이나 ‘전봉준장군생활전시관’도 조악하기 그지없다.

무장기포지에는 ‘발상지비’, ‘무장창의포고문비’ ‘무장기포 기념탑’ ‘고창주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조형물 사이에 조화나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적당하다고 판단한 장소에 세워 놓은 꼴이라 황량한 느낌이다. 육중한 화장암 돌에 햇불모양의 형상과 전봉준의 상을 새겨놓은 무장기포 기념탑도 무장기포에 걸맞는 조형성이나 상징성이 약하다. 무장기포 기념탑 앞에 새겨놓은 포고문과 무장창의포고문비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새기고 세웠다.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고창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유적지를 지니고 있으나 원형 보존은 물론 제대로 된 복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학술 토론회와 실태 조사 논문을 통하여 논의되었다.

- 원도연, 1998, 〈동학농민혁명 정신 및 유적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언〉
- 김인철, 1998,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존과 개발 방안〉
- 문병학, 2008,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활용방안〉
- 고창군, 2008,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전략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 신순철, 2010,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
- 이상균, 2010, 〈문화재적 가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 김양식, 2010,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문제는 모든 유적지를 한꺼번에 성역화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유적지에 기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유적지의 가장 중요한 활용방안은 역사기행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국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을 할 때 주로 찾는 지역은 정읍지역과 전주, 공주 우금치 지역이다. 전문 연구자들이나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답사가 아닐 경우 고창은 역사기행 대상지에 쉽



무장기포 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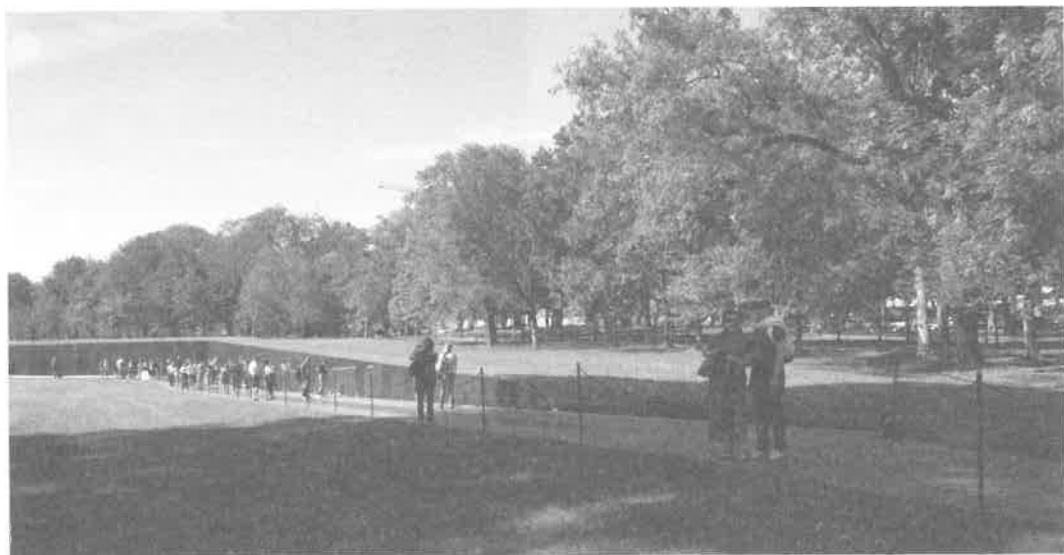
기 포함되지 못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경우 역사기행이 짜여지는 동선의 예를 들면 이렇다. 1894년 농민전쟁 역사기행을 할 때, 하루나 이틀이냐에 따라 일정과 답사할 순서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낮이 긴 여름철 하루 일정으로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새벽같이 떠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부안 나들목으로 나가 백산에서 시작해서 고부관아 터, 전봉준 옛집, 만석보터를 둘러본 뒤 말목장터에서 점심을 먹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황토현기념관과 기념탑, 신중리 주산마을 동학혁명모의탑과 무명농민군 위령탑을 둘러 볼 수 있다. 오후에 출발해서 선운

사 부근에서 1박을 하는 경우에는 새벽에 일어나 선운사 도솔암까지 올라가 마애불을 본 뒤 선운사를 둘러보고 아침을 먹고 출발하여 주산마을, 고부관아터, 백산, 말목장터 점심, 전봉준 옛집, 황토재 기념탑과 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만석보터, 공주 우금치를 거쳐 올라온다. 이 또한 짝딱한 일정이다.

1박 2일로 일정을 잡을 때는 하루 일정에 따라 농민전쟁 전적지를 둘러 본 뒤 선운사 부근에서 하루 밤 자고 새벽에 도솔암, 천마대 낙조대를 올랐다가 선운사를 둘러보고 아침을 먹은 뒤 상갑리 고인돌, 고창읍성, 신재효 고택과 판소리 기념관, 고창에서 점심, 올라오는 길에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공주 우금치를 들린다.

이렇게 일정이 짜여지는 것은 고창이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지역이지만 역사기행을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까지는 꼭 가서 보아야 할 볼거리나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역사 유적지 활용 사업에는 집중과 확산, 비중의 고저, 사업의 선후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없으며,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도 지역마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다르다. 역사의 다른 사건이나 다른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고창지역의 유적지, 발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일까?

유적지로는 농민군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탄생지와 1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무장기포



워싱턴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비

지를 꼽을 수 있겠다. 두 곳을 중심으로 역사기행 활용을 위한 사업을 벌인다면, 전봉준 탄생지에는 전봉준의 일생과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기념학습관이, 무장기포지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수준 높은 기념조형물이 방안이다.

보기로 들 수 있는 것이 외국인 학자들도 호평하는 고부 신중리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이다. 1893년에 동학혁명을 모의했던 곳이고 입구에 동학혁명모의탑이 있기도 하지만, 위령탑을 보려고 들리는 경우가 많다. ‘위령’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는 아니지만, 위령탑이 하루 역사기행을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크고 화려하고 많아야만 찾는



독일 하르부르크 반파시즘 기념비

것이 아니다. 1982년 워싱턴에 세워진 베트남 참전용사 추모 조형물이나 1986년 독일 하르부르크에 세워진 파시즘과 전쟁, 폭력에 반대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한 반파시즘 기념비는 기념조형물 하나 만으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발길을 이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숙박과 학습 토론을 겸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숙박지’가 필요하다. 1박 2일 역사기행에서 중간에 잠자고 머물면서 강의와 학습과 토론과 영상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다.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일반 여행객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인구의 이동과 집중도 많고 교통편이나 다른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하여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끌 수 있는 고창 읍내가 적합할 것 같다.

4. 맺음말

역사란 지금 여기서 그때 거기의 과거와 관계 맺기라고 할 수 있다.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물 가운데 대표적인 매체가 책이고 글이다. 역사의 현장, 거기를 재구성한 공간이 유적지이다. 사람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느끼고, 기리려고 유적지를 찾는다. 유적지에 세워진 기념 조형물들은 형상과 상징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역사상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반파시즘 기념비

모든 역사는 지금 여기에서 재구성된 현대사이기도 하다. 1894년 농민전쟁의 사실을 이해하고, 의의를 되새기고, 정신을 계승하려고 유적지를 복원하고 기념 조형물을 세운다. 유적지 복원과 기념 조형물에는 당연히 1894년 농민전쟁의 사실과 의의와 정신 담겨 있어야 한다. 근현대사의 다른 사건의 현장에 세워진 조형물과 차이가 없고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1894년 농민전쟁의 기념

조형물로서 해야 할 제 몫을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894년 농민전쟁은 1월 고부농민 봉기부터 1895년까지 전개된 곳곳이 역사의 현장이다. 역사의 현장이라고 해서 모든 곳을 유적지로 복원하고 기념할 수는 없다. 기념할 만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된 유적지에는 1894년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의 일부이며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사건의 특성이 담겨 있다. 지역마다 유적지를 정비하고 기념 조형물을 세울 때 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의 성격은 물론 계절과 지역의 특성도 살려야 한다. 어디에 세워도 문제가 없을 일반적이고 추상화된 비슷비슷한 조형물을 유적지마다 세우는 것은 낭비이다.

역사기행이나 답사를 할 때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옛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산천의 구란 말 옛 시인의 넓이로 고' 하듯이 산천도 변했다. 역사의 현장을 사실에 가깝게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있었던 사실을 사실에 가깝게 역사를 복원하고 현장감을 높일 수 있게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역사 기념사업에서 언제나 고려해야 할 출발점이다. 역사 유적지나 기념 조형물은 그곳에 그런 형상으로 있어야 할 이유를 담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 역사의 유적지에서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을 얻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느끼게 하려면, 유적지의 공간배치나 조형물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머물게 하고, 보게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현장에 세워진 수많은 조형물들이 그런 몫을 제대로 담당하질 못했다. 고개를 들고 쳐다보아야만 하는 동상, 숨 막힐 듯 위압적인 높은 탑, 의미를 담지 못한 돌덩이 세워놓은 무성의한 조형물들은 오히려 역사에 거리를

두께 만들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농민군은 사람을 위아래 양반 상놈으로 엄격하게 나누는 상하 수직의 신분 질서를 깨트리고 서로 대등한 수평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또한 농민전쟁은 기존의 질서와 지배의 균형을 깨고 세상을 바꾸려는 밑으로부터 일어난 투쟁이었다. 그렇다면 조형물도 좌우 대칭의 중심에 수직으로 우람하게 선 조형의 상보다 수평의 형상으로 농민군의 뜻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군이 수평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추구했던 정신에 견주어 볼 때 과거의 기억을 몇몇 지도자로 한정하고 미래의 상상을 통제하는 동상, 민중의 기억을 국가의 통제로 가두려는 수직의 탑은 1894년 농민전쟁 상징물로 걸맞지 않다.

1894년 농민전쟁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유적지에 탑과 동상을 세워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탑과 같은 형상의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좌우균형의 받침대 위에 높게 세워진 수직의 탑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 관에서 주도하는 조형물 조성 사업에서 지정된 크기의 '규모'를 요구하는 제한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조형물의 높이와 규모를 놓고 지역별로 경쟁을 벌이는 것은 역사를 '크고 높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압살하고 통제하는 행위이다.

전봉준생가 복원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전봉준생가 복원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

문병화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 I. 들어가는 말
- II. 기념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 III. 전봉준생가 복원현황과 문제점
- IV. 전봉준생가 환경정비계획(안)
- V. 전봉준생가 활용방안

I. 들어가는 말

갑오년(1894) 3월 20일 무장현 동음치 구수내에서 포고문을 공포하고 대장정에 오른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수없이 일어난 국지적인 민란들과는 차원이 다른 일대 사변이었다. 전제왕조 체제였던 조선사회의 내부적인 모순과 서구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탈로 뒤튼어진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빚어진 이 사건은 조선 내부의 사회질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질서,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정치정세를 격동시켰다.

동학농민혁명과 고창지역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내외에 ‘포고문’을 공포하고 혁명의 대장정(大長征)에 오른 첫 출발지가 고창이며, 그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출생지 또한 고창이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고창지역이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일제식민지시기, 해방이후 민족내부 정치세력들 간의 극심한 좌우대립, 외세에 의한 신탁통치,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군사독재정권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극심한 부침(浮沈)으로 인해 지난 1970년대까지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제대로 연구·조명되지 못하였다. 일제식민지시기에도 그랬지만 해방이후 외세에 의한 신탁통치시기와

군사독재정권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건은 반란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진 채 극심한 왜곡과 함께 정치적인 억압과 통제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광주민중항쟁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민족민주세력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에 힘입어 이 사건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고, 이때에 이르러서야 혁명의 첫 출발지가 고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이견들이 제기되었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출생지도 1990년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관련학계의 연구논문 발표 등이 이어져 고창 당촌설이 정설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고창군은 지난 2000년 전봉준 생가복원 및 동학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단체에 의뢰한 학술용역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3년도에 그때까지 만해도 발작물이 경작되던 전봉준생가 터에 초가를 이진(移建)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였으며, 무장기포 이후 농민군이 복상한 길을 따라 표석을 설치하는 동학로(東學路) 개설사업을 추진했다.

1990년대까지 농작물이 경작되던 생가 터가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정비된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진전이자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복원된 것은 전봉준생가가 지니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에 비추어볼 때 그 규모나 내용이 턱없이 허술하고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복원된 생가는 철저한 고증을 전제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그 규모나 건립 위치, 방향 등등이 역사적 사실과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못한 현재의 생가는 향후 사적지정 등의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고창지역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내는 것에서도 많은 약점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표문은 그동안 전국에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시설물 현황과 고창지역 유적지 환경정비에서 드러난 문제점 검토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봉준생가 환경정비계획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기념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1. 전국 기념시설물 설치현황과 문제점

1) 기념시설물 설치현황

동학농민혁명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기념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건립·설치된 기념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계	시 기	기념사업의 방향과 내용	사업의 주체
제1단계	1895 - 1910년	유교적 충절, 반농민군 측 기념	봉건왕조 · 유림
제2단계	1910 - 1959년	기념사업의 암흑기, 침체기	
제3단계	1960 - 1989년	정치적 이용, 종교적 차원의 기념	정부 · 천도교
제4단계	1990 - 2004년	민족민주운동 성장, 민간단체 활동	자치단체 · 민간단체
제5단계	2004 - 현재	특별법 제정, 기념사업 전국화	정부 · 자치단체 · 민간단체

① 제1단계(1895~1910) 기념시설물¹⁾

사업 주체	사업 내용 (기념시설물명)	장 소	건립연도
조선정부 · 유림	박봉양비	전북 남원	
	장춘단	서울 성동	1895
	초토사이공승우淸德碑	충남 아산	1895
	관찰사박공제순애민선정비	충남 홍성	1895
	행목사겸초토사이공승우백세불망비	충남 홍성	1895
	초토사이공비	충남 서산	1895
	금성토평비	전남 나주	1895
	유희장유학박순식著德碑	충남 서산	1895
	증 군무참의김공병돈유공지비	충남 홍성	1895
	증 군무참의김공병돈충절전망비	충남 서산	1896
	의사 한기경정려비	충남 홍성	1896
	증좌승지이공학승순의비	전남 장성	1897
	영희단(당)	전남 장흥	1898
	광서이십년갑오동학란수성장졸순절비	전남 장흥	1899
	벽사도찰방김후일원청사복성불망비	전남 장흥	1900
	흥룡단	전남 장흥	1901
	공조참의정숙조순의비문	충남 금산	1902
	군관정지환순의비문	충남 금산	1902
	모충단	충남 금산	1904
	갑오전망장졸기념비(각)	충북 청주	1905

② 제2단계(1910~1959) 기념시설물

사업 주체	사업 내용 (기념시설물명)	장 소	건립연도
조선정부 · 유림	의사한홍규순절비	충남 금산	1912
	모충사	충북 청주	1914
	철의비	충남 홍주	1935
천안전씨 문중	전봉준단비	전북 정읍	1954

③ 제3단계(1960~1989) 기념시설물

사업 주체	기 념 물	장 소	건립연도
중앙정부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전북 정읍	1963
	의암 손병희 동상	서울 파고다공원	1966
	동학혁명 모의탑	전북 정읍	1969
	동학혁명군 위령탑	충남 공주	1973
	만석보 유지비	전북 정읍	1974
	갑오 동학혁명군 추모탑	충남 태안	1978
	해월 최시형 동상	경주 황성공원	1979
지방정부	전봉준 고택	전북 정읍	1981
	전봉준 동상	전북 전주	1981
천도교	황토현 기념관	전북 정읍	1983
	제민당	전북 정읍	1983
	춘암상사 박인호 유허비	충남 예산	1985
	의암 손병희 어록비	충북 청원	1986
	전봉준 동상	전북 정읍	1987
	사당	전북 정읍	1987
	동학혁명 백산창의비	전북 부안	1989
민간단체	동학혁명군 위령탑	강원 홍천	1978
	갑오기미무오삼대운동기념비	전북 임실	1983
	김덕명 추모비	전북 원평	1989

1) 박명규,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사회와 역사』(봄호), 1997, 한국사회사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1997년 이후 건립된 기념시설물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재구성하였다.

④ 제4단계(1990~2004) 기념시설물

사업 주체	기 념 물	장 소	건립연도
천도교	해월신사추모비	강원 원주	1990
	내척내수도문 반포 백주년 기념비	경북 금릉	1991
	해월신사 독공지비	강원 정선	1993
	의암성사 생가 성역화 및 동상	충북 청원	1994
	최시형 체포지 기념비	강원 원주	1995
	동학혁명 백주년 기념관	전북 전주	1996
자치 · 민간단체	동학농민군 전주입성비	전북 전주	1991
	고승당 기념비	경남 진주	1994
	무장창의 포고비	전북 고창	1994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전남 장흥	1992
	김개남 추모비	전북 전주	1993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	전북 정읍	1994
	손화중 추모비	전북 전주	1995
	장성 황룡촌 기념탑	전남 장성	1995
	보은취회 기념비	충북 보은	1995
	남원 교룡산성 은적암 기적비	전북 남원	2006
자치 · 민간단체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기념비	전북 완주	1996
	상주동학농민군상	경북 상주	1997
	전봉준 생가	전북 고창	2001
	대둔산 최후항전 기념비	전북 완주	2001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	전북 완주	2002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역사공원	전북 고창	2002
	전주역사박물관	전북 전주	2002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충북 보은	2007
중앙·지방정부	동학농민혁명 기념교육관	전북 정읍	2004

2)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전국에 각지에 건립·설치된 유적지의 기념시설물들을 단계별, 내용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계	합계	비·탑	동상	사당	기념관	기념공원	기념상	생가(고택)
제1단계	20	16		4				
제2단계	4	3		1				
제3단계	19	11	2	3	1	1		1
제4단계	25	16			3	4	1	1
총계	68	46	2	8	4	5	1	2

위 표를 통해 그동안 추진된 유적지의 환경정비 혹은 관련 인물을 기리기 위해 추진된 기념사업들이 건물을 짓거나 기념비, 탑을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 전국 각지에 건립·설치된 기념시설물 총 68개 중 기념비·탑이 46개(약 67%)로 압도적으로 많고, 기념관·생가(고택)·사당 14개(약 20%), 기념공원·기념상 6개(약 9%), 동상 2개(약 3%) 등이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유적지나 인물을 추모(기념)하는 행위가 전통적으로 기념비나 기념탑 등을 건립·설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건립·설치된 기념시설물들의 공통적인 한계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지 못한 채 박제화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기념시설물들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수풀에 쌓여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해당지역 자치단체나 문화재보호 관련기관 등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기념관이나 여타의 건물들은 그 유지비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4단계 들어와 기념사업에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면서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과의 연계를 고려한 기념시설물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사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쉼터 기능과 생활체육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추진된 삼례봉기 기념 역사공원(2003)과 일본군에 의해 복살전투에서 학살당한 농민군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한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2007)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의 기념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념사업을 위한 기념사업, 다시 말해서 기념비나 기념탑 등 가시적인 것에 집착하는 고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삶과의 연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서구자본주의 근대문명 출발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21세기 들어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문명창출에 대한 시대사적 요청도 염두에 둔 기념사업으로 전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고창지역 유적지 정비현황과 문제점

1) 유적지 현황

고창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유적지 상당수가 존재한다. 고창지역 유적지들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유적지명	위치	문화재지정여부
인물유적	전봉준생가	고창읍 죽림리 당촌 63번지	비지정
	손화중 도소	성송면 괴치리 276-1(본부)	비지정
		성송면 양실마을(세력 근거지)	
	손화중 피체지	부안면 수강산 산당	비지정
관련유적	무장기포지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비지정
	무장읍성	고창군 무장읍	사적 제346호
	무장관아	무장동헌	시도유형문화재35호
	여시외봉	무장면 신대리	비지정
	도솔암 마애불	아산면 삼인리 산97	보물 제1200호
	모양성(고창읍성)	고창읍 읍내리 126번지	사적 제145호
	용수마을	공음면 용수리(절터), 집회장소	비지정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그 중요도에 서 첫 손가락에 꼽힐 수 있는 전봉준생가와 무장기포지 등이 지금까지도 문화재 등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호남지역 최대 조직을 거느렸던 손화중과 관련된 유적지들도 제대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임진년(1892) 8월 손화중포에서 주도한 비기탈취사건의 무대였던 선운사마애석불이 동학농민혁명과의 관련성이 아닌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고, 동학농민혁명 관련유적인 고창읍성·무장읍성과 무장동헌·홍덕동헌 등이 국가사적과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정비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에 이루어진 환경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전봉준 생가 터에는 2003년 전체 3,778㎡(1,143평) 부지를 정비하여 초가를 이진(移建)했으며, 같은 해에 무장기포 이후 동학농민군이 복상한 길을 따라 동학로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포고문을 공포하고 전국적인 농민항쟁에 나선 첫출발지인 무장기포지에는 8,065㎡(2,440평) 부지에 발상지비, 무장창의포고비, 무장포고 기념탑, 고창주추모비 등이 세워져 있고, 무장포고 당시 참가한 3대 장수를 상징하는 소나무 3그루와 구수마을을 상징하는 아홉 줄기의 느티나무 등으로 조경사업이 추진되었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도 동학농민군 훈련지이자 숙영지였던 왕제산자락(여시피)에는 폐교된 신왕초등학교 교사(校舍, 3층)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향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고창군에서 여시피봉 주변의 부지 46,405㎡(13,738평)를 확보해둔 상태이다.

또한, 손화중 도소지로 추정되는 성송면 피치리 276~1번지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손화중 대접주의 주요 활동 거점의 하나로 알려진 성송면 양실마을에는 아직 특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화중 피체지인 고창군 부안면 안현리 마을 입구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동안 고창지역 유적지 환경정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는 고창지역에 소재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이 전체적인 틀에서 상호간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고창지역 전체 유적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관청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단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매우 단순한 표석설치나 비석설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지역주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II. 전봉준생가 복원현황과 문제점

1. 경과

1990년 이전까지 전봉준 출생지에 대해 여러 설(說)들이 난무했다. 전봉준이 체포된 후 심문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에 근거한 태인 동곡리 출생설, 당시 정읍지역의 이름난 문장으로 알려진 옹택규의 손자 옹경원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다는 말에 근거한 정읍 덕천면 시목리 출생설, 지역주민들에게 전해들은 얘기에 근거한 사학자 김상기의 고부 조소리 출생설 등이 제기되었다.

이밖에도 전주 구미리 출생설, 원평 출생설 등등이 회자되었다. 이런 속에서 1980년대 신군부정권이 이 사건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읍 이평면 조소리의 고택(古宅)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이곳이 전봉준생가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사학자 김상기는 자신의 저서에 정읍 이평면 조소리를 전봉준 출생지로 기록한 것은 “교과서에 등재하기 위한 조희가 왔을 때 중론으로 모아진 의견이 조소리설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조소리 출생설이 확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체적인 의견’에 따랐음을 솔직하여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다시피 했다.

1990년대 들어와 관련단체 등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련학계에서 학술논문 등의 발표가 잇따르면서 전봉준생가가 고창 당촌으로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전봉준이 고창 당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오지영의 『동학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천안전씨 족보인 『병술보』와 『임술보』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천안전씨 족보인 『병술보』에는 전봉준가의 당내지간들 대부분이 고창 당촌 인근에 장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봉준이 2살 때 타계한 조부 석풍(碩豐)의 묘도 원래는 당촌마을 옆 맥모등(脉母嶺), 당촌마을 동쪽 선대묘가 있는 곳)에 매장되어 있었으나 후에 전봉준 부친 전창혁에 의해 고부 남부면으로 이장했다는 증언이 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 선대의 장지와 후대의 출생지가 대체로 일치하는데, 전봉준 조부 등 선대 묘가 당촌에 있었다는 사실도 이곳이 출생지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한 근거이다.

이와 같이 고창 당촌이 전봉준의 출생지로 확인됨에 따라 고창군은 관련단체에 의뢰한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2003년도에 동학로(東學路) 개설사업과 함께 초가를 이진(移建)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전봉준생가를 복원하고, 생가마을 주변을 정비하였다.

2. 복원 현황

1) 일반 개요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번지 일대
부 지	· 3,778㎡(1,143평)
내 용	· 초가(草家, 5칸) 1동, 행랑채(우사牛舍) 겸 창고 1동 · 파랑새요(謠) 돌비, 안내판, 간이화장실, 주차장 등 조성 · 생가 동쪽 소재 선대묘소 앞 오석비(烏石碑)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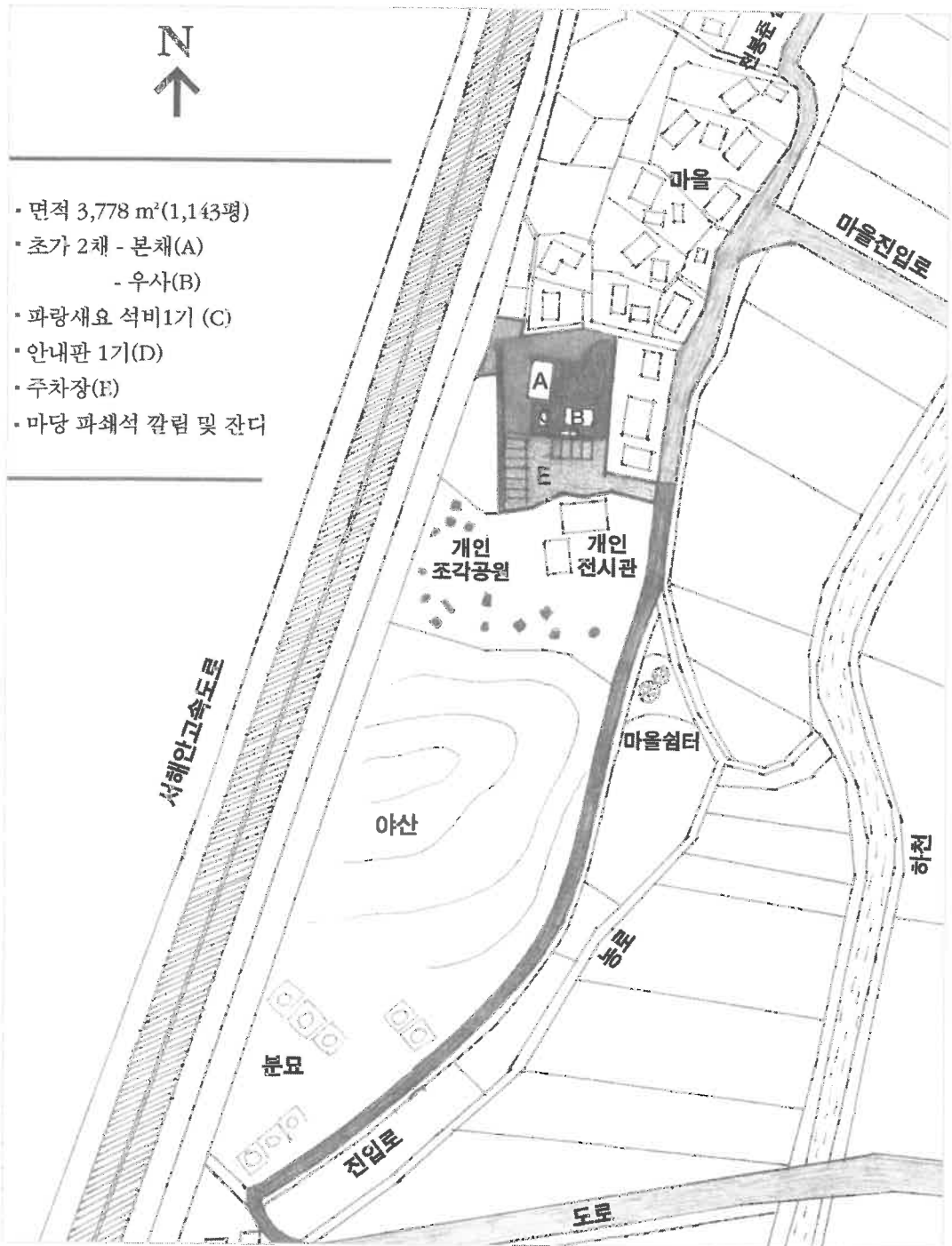
전봉준생가 항공사진



전봉준생가 전면



전봉준생가 측면



전봉준생가 현황도

2. 제기된 문제점

철저한 고증이 전제되지 못한 채 복원된 현재의 생가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초가의 규모(높이와 크기)와 건립방향 및 그 위치이다. 19세기 당시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3칸짜리 초가에서 기거했으며, 가계형편이 좀 더 나은 중인들은 5칸짜리 초가에서 기거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관련학계 연구는 당시 전봉준의 가계형편이 일반 농민들의 여건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현재 복원되어 있는 초가는 경제적 형편상 주로 중인계층이 기거했던 5칸짜리 초가여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본채 외에 우사(牛舍)를 겸한 창고 형태로 행랑채가 복원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행랑채 내부를 살펴보면 외양간 형태로 좁은 공간 앞쪽으로 소구유(소먹이통)가 놓여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일반 농민들이 소를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는 점과 설령 소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복원되어 있는 외양간은 그 폭과 길이가 도무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복원된 행랑채(외양간)는 소는 고사하고 작은 염소가 겨우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공간밖에 되질 않는다. 이밖에도 생가 마당에 천안전씨 문중에서 세운 파랑새 노래비, 방문객을 위한 안내판, 마당과 직결되어 있는 주차장, 플라스틱 간이화장실 등이 전봉준생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조잡하게 복원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V. 전봉준생가 환경정비계획(안)

1. 대전제(大前提)

서구자본주의 근대문명 형성단계에서 핵심 키워드는 인권과 평등이었다.

신권(神權) 중심의 중세사회가 18세기 후기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함께 인권과 평등으로 표상되는 근대문명으로 전환하게 된 바탕으로 부르주아계급 출현을 빼놓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산업화와 함께 인권과 평등이 주창된 이면에는 신흥귀족인 부르주아지들이 공장을 설립하고, 이것의 운영에 필수조건인 임금노동자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었음은 잘 알려

진 것과 같다. 산업혁명 이전 서구·유럽 등에서는 신전(神殿)으로 상징되는,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았다고 사칭한 소수 특권층에 의해 정치권력이 행사되었다.

그 특권층 아래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봉건영주로 군림했으며,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전제왕조 혹은 봉건영주에게 예측된 노예였다. 이런 신분질서 하에서는 신흥부르주아지들이 공장 운영의 필수요건인 임금노동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난관에 봉착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고자 시대사적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다름 아닌 인권과 평등이었다. 한편, 수천 년간 신분사회를 유지해오면서 天地人合一이라는 자연주의적 지향을 강하게 견지해온 동양에서도 근대화의 도저한 흐름 앞에서 서구와 마찬가지로 인권과 평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그러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전통이 확연하게 다른 동양에서는 인권과 평등이 서구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1960년 경상도 경주에서 최제우가 천명한 시천주사상(侍天主思想)을 중핵으로 한 동학은 다분히 인간을 산업화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주창되었던 서구적 인권·평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보다 근본주의적인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추구했다. 이는 산업화에 기반을 둔 다분히 기계적으로 전개된 서구자본주의 근대문명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전통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차원 높은 근대적 지향이었다.

그러나 동학은 체제적 한계에 봉착한 부패무능한 조선왕조의 극렬한 탄압과 서구자본주의 세계화 과정 즉 제국주의 열강 침략이라는 서세동점의 파고(波高) 앞에 개화하지 못하고 스러지고 말았다.

지난 20세기에 이루어진 산업화의 과정은 곧 국제적으로 국가간 서열화의 과정이었고, 국내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계급과 계층간 양극화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앞에 또다시 첨병 FTA를 앞세운 신자유주의가 들이닥쳤다.

19세기 말엽 서세동점이라는 격랑(激浪)과 21세기 초입에 들이닥친 신자유주의라는 격랑은 약소국가들과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을 제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격랑이 지난 세기 산업화의 과정에서 쇠락을 거듭해온 약소국가들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치명상을 안겨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시대적 여건 속에서 추진될 전봉준생가 환경정비사업은 현재의 시대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른바 ‘근대 이후’를 스스로 자처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인식되기도 했던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신자유주의로 표상되는 서구자본주의 근대문명의 폐해가 극심해지면서 새로운 문명적 대안 모색이 절실해진 21세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생가를 ‘메시아(Messiah)의 고향’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활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기본방향

앞장에서 전국(고창지역) 기념사업 현황과 문제점, 전봉준생가 복원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전봉준생가 환경정비와 활용방안 모색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①전봉준 생가마을을 메시아(Messiah) 파랑새의 고향으로 상징화한다. ②21세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격조 높은 문화예술적 이미지화를 추구한다. ③해당지역 주민들의 삶과 긴밀한 연계를 추구한다. ④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체를 연계시켜 활용한다.

1) 전봉준생가를 메시아 파랑새의 고향으로 상징화 한다.

격조 높은 문화적 이미지화를 통해 전봉준생가마을을 메시아 고향으로 상징화한다.

그동안 고창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수박, 복분자, 풍천장어 등이었다.

이들이 고창의 대표 이미지로 부상한 것에는 그 필요성과 나름대로 충분한 까닭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창지역을 항구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이미지로서는 아쉬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중세 신분사회 아래에서 전봉준이 메시아로 등장하여 우리 모두에게 근대적인 평등사회를 안겨준 점을 근거로 전봉준생가를 메시아의 고향으로 상징, 이를 고창지역의 대표적인 상징이미지로 자리매김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0세기 서구자본주의 근대화 혹은 산업화가 초래한 제반의 문제들이 극심해져 인류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문명 창출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현재의 시대사적인 상황도 위와 같은 상징화 작업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2) 격조 높은 문화예술적 이미지화를 추구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동안 전국 혹은 고창지역에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유적지 환경정비는 우람한 축대를 쌓고 그 위에 기념비(탑), 동상 등을 높이 세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기념시설물 건립 및 설치사업이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전한다는 의미에 붙들려 매우 단순하게 이루어졌거나, 혹은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 상징조작 차원에서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곳에 전시성으로 이용되어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21세기 이른바 문화관광산업의 시대이고, 그 시대사적 정서가 이전 세기와는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2011년에 모색되고 수립되는 유적지 환경정비에서는 무엇보다도 격조 높은 문화예술적 이미지화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기념사업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주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시킨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과의 연계는 관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중의 하나로 고창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장소 판촉’과 벤처 마인드(Venture Mind)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장소 판촉과 벤처 마인드를 도입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전봉준생가 환경정비 및 그 활용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왕에 복원된 생가를 적극적으로 개선, 격조 높은 문화적 이미지화 추구를 통한 역사문화관광 상품으로 브랜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에서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해나간다.

4)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체를 연계시켜 활용한다.

고창에서 이들 유적지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고창지역 전체 유적지들을 긴밀하게 연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봉준생가에 메시아 파랑새의 고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장기포지=메시아 파랑새의 출현, 선운사 마애석불=메시아 파랑새의 은거 등의 스

토리로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의 내용적 연계를 모색한다.

나아가 외형적인 측면에서도 각각의 유적지마다 입간판이나 표석 등을 설치할 때도 공통된 이미지 통합을 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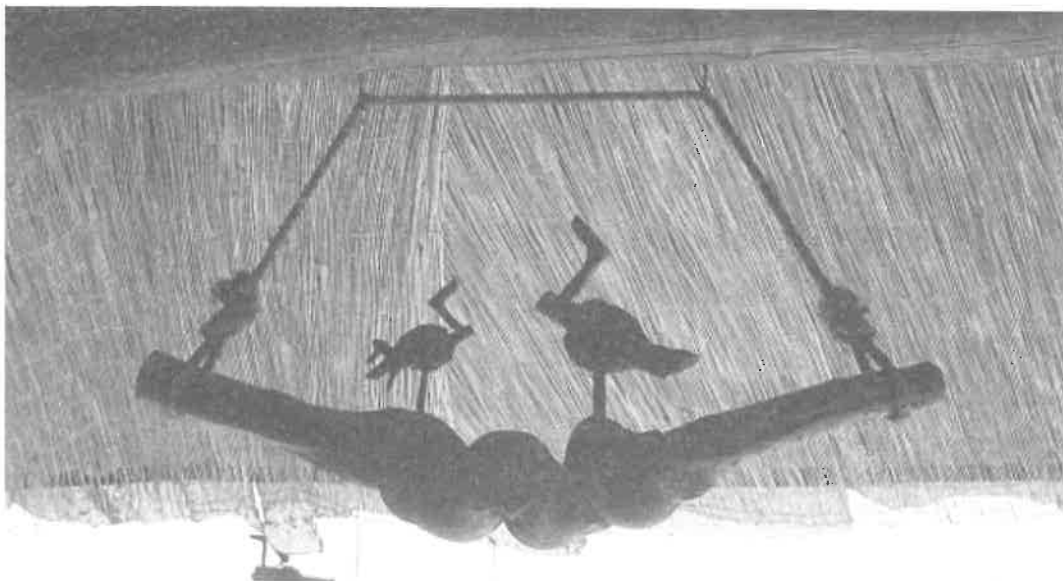
3. 세부계획(안)

1) 이미지 구성

기본 이미지	· 상징 이미지 → 메시아, 파랑새의 고향 · 이미지 매개물 → 기념광장, 백일홍숲, 연못(가시연꽃) · 이미지 보조물 → 솟대, 소나무숲, 배롱나무숲
솟대의 의미	· 간절한 그리움, 애틋한 기다림, 천지인(天地人) 일체, 기원
핵심적 테마	· 생가마을 백일홍나무숲에는 메시아 파랑새가 살고 있다.



예시 : 역사광장 정자



예시 : 정자미당 처마에 걸린 솃대

동학농민군이 추구했던 이념의 특징은 그 유장한 생명력에 있다. 때문에 전봉준생가 환경정비를 추진할 때 이점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시기 생가복원 사업의 한 전형으로 인식되어온 초가복원이나 역사적 의의를 상형문자(文字)의 틀 속에 가두곤 했던 한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예시 : 생가마을 곳곳에 세워질 솃대

나아가 전봉준 생가마을 환경정비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고창지역 다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봉준 생가마을을 동학농민군이 추구했던 유장한 이념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이곳을 격조 높은 문화예술적 이미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높은 장대나 나무 위에 기러기나 오리 등 새의 형상을 올려놓은 솟대는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고조선 때부터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전통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을 한 몸으로 인식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주적 상생을 추구했던 우리 조상들의 하늘사상(天思想)에 담긴 염원과 지혜를 동학(東學)의 시천주 혹은 인내천 사상과 동학농민군의 지향 등을 연계시켜서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미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생가마을의 상징 이미지 매개물을 파랑새 솟대로 설정하고자 한다. 파랑새는 동양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길조였고, 솟대 또한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매개물로서 애뜻한 기다림과 간절한 염원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전봉준 생가마을 전체를 메시아 파랑새의 고향으로 상징화하고, 솟대 설치를 통해 상징적 이미지화를 구현시켜내고자 한다.

2) 기존시설 정비계획

현재 추가로 복원되어 있는 안채와 부속채(행랑채)는 전봉준이 살았던 당시의 건축원형을 철저히 고증한 것을 전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초가는 철거한다. 다만, 기왕에 건립된 것이니 이를 새롭게 조성될 진입로 시작 부근(주차장)으로 이전시켜 고창지역 토산품판매장 등으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초가 마당과 직접 연결된 주차장과 플라스틱 재질로 세워져 있는 간이화장실 등등 기존의 복원된 시설물 전체를 철거시킨다.

3) 토지이용계획

현재 복원된 생가의 규모와 환경으로는 전봉준생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구현하고 표현해내는데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생가마을 서편 야산을 끼고 돌아드는 진입로 시작지점에 대한 부지매입과 생가마을 안쪽 개인미술 및 조각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가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가 바로 앞의 민가 등에 대한 매입 및 고도제한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4) 주요시설계획

현재 복원되어 있는 초가를 이전시킨 후 그 자리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통해 건물의 기틀을 떠올릴 수 있도록 화강석 등으로 초석을 놓고 잔디를 조성하는 것으로 생가복원을 가름한다. 그런 후에 현재의 개인미술관과 조각공원, 현재의 주차장 부지 등을 정비하여 이곳에 역사광장을 조성한다. 역사광장 안에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지나치게 높지 않는 벽을 만들어 그곳에 역사기록화를 부조로 새기는 것을 통해 생가의 역사적 의미를 이미지로 전달한다. 나아가 생가마을 전체를 메시아의 고향이라는 상징적인 키워드에 부합하도록 생가터, 기념역사광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이미지화 한다. 메시아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가마을 전체를 백일홍나무 등으로 울창하게 숲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곳 백일홍 숲속과 생가마을 곳곳에 방문객들이나 주민들이 언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벤치 등을 배치한다. 메시아 파랑새의 고향(생가마을)은 방문객들이 스스로 기원을 담고 소원을 적은 솟대를 깎아 백일홍 숲이나 마을 곳곳에 걸거나 세움으로써 차차 완성되어가는 패턴이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솟대를 만들어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품판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방문객들이 스스로 알아서 솟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마련이 필수적이다. 한편,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는 고창군목(郡木)인 소나무를 식재하여 커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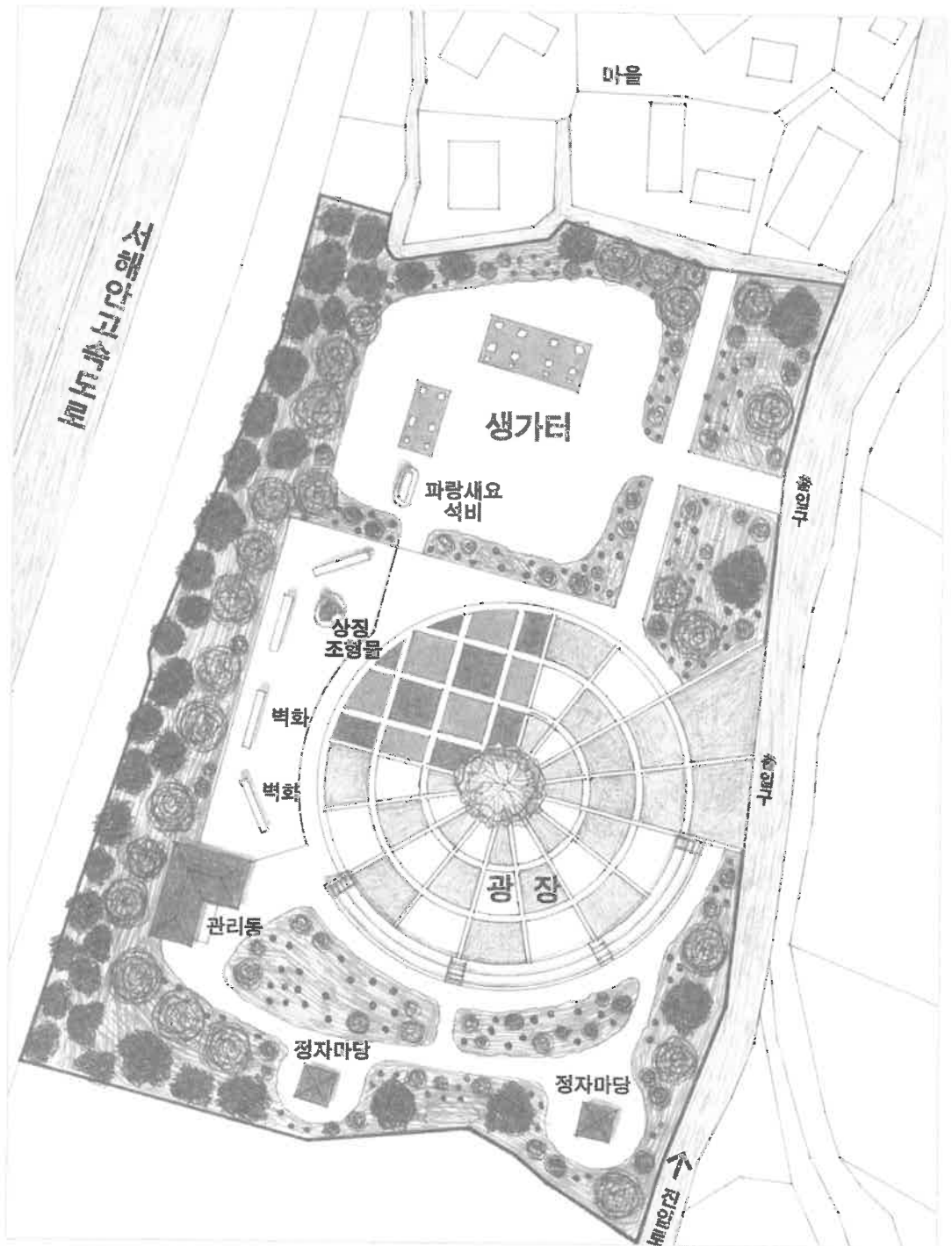
5) 주요 동선계획

생가마을 남쪽의 진입로 시작 부근에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가 터 인근까지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해서 생가 남쪽에 조성될 주차장에서부터 야산을 타고 돌아드는 옛길을 정비하여 진입로로 활용하고, 생가마을 동쪽 남북 방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정비하여 방문자가 걸어서 생가마을을 탐방할 수 있도록 원형의 동선을 구축한다.

- 개인 미술관 및 개인 조각공원 매입확장
- 도로 인접 민간 주택지 매입확장
- 국도에서의 진입로 입구로 주차장 이전
- 주차장에 인접하여 안내소 및 특산물 판매장 설치(현 생가 건물의 이설)
- 고속도로 차음벽 앞에 소나무 및 백일홍 나무 식재



전봉준생가 환경개선 배치도



전통준생가 환경개선 배치도(확대)

4. 사업예산(안)

소요예산 총괄표(단위: 천원)

관	항 목	금 액	비 고
총 계		3,600,000	
기획진행	생가복원 관련 고증	100,000	
	기획진행비	100,000	
	조형물 구상비	100,000	전국 공개모집
	이미지 공모비	100,000	전국 공개모집
	실시설계비	200,000	
부지매입	주차장 부지	60,000	60,51 m ² (약 200평)
	조각공원 및 미술관 등	80,000	
역사광장	역사광장 기초공사비	500,000	
	정자 건축비	100,000	2곳
	상징조형물 설치비	400,000	
	관리동 건축공사비	500,000	
	벽화(역사화) 시공비	300,000	
생가정비	생가 터 조성	50,000	잔디, 화강암 기초석 설치
	현재의 초가 이전비	60,000	
조경사업	소나무 식재비	200,000	고속도로변, 30주
	백일홍나무 식재비	250,000	생가 주변 2,000주
	진입로 정비 (2곳)	100,000	서편 · 동편 진입로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공사비	300,000	화장실
	파랑새 숲대 설치	100,000	大·中·小 1,000개 이상

V. 전봉준생가 활용방안

1) 장소 판촉과 벤처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농촌지역인 고창은 지난 20세기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침체에 빠진 아픈

경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점으로 인하여 서구자본주의 근대문명 안에 내장되어 있는 파괴적인 폐해로부터 고창지역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채 잘 보존되었다. 지난 20세기 말부터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심각한 자연파괴 등등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친환경생태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왔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잘 보존된 고창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의 보고로 활용하는 ‘장소 관측’과 ‘벤처 마인드(Venture Mind)’ 도입을 적극화할 필요성이 있다. 고창군은 비옥한 농토와 천혜의 서해바다, 고인돌 무리로부터 근대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가 다채롭다. 이렇듯 훌륭한 자연·인문환경을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게 잘 엮어서 장소 관측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구슬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이에, 고창군의 훌륭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매개시켜 찾아가고 싶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 고창군 전체를 아우르는 ‘야의 갤러리’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창군 전체를 ‘친환경 문화예술센터(Culture Art Center)’로 전면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Art Center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 방안으로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귀농유도 등의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

2)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환경정비 및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자연의 한 현상인 거미줄에서 매우 중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거미줄은 안으로는 유기적인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밖으로는 유인과 포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창지역은 한국근대사의 명과 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문환경을 간직하고 있다. 한국근대사의 관문 혹은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요람이자 그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출생지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근대 경제사학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되는 ‘동암 백남운’의 고향이며, 살아생



· 內的意味 - 유기적 연결
· 外的意味 - 유인과 포획

전 행한 친일행위로 인해 사후에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 인촌 김성수, 미당 서정주 등의 고향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촌 김성수는 한국근대 교육기반 구축에서 발자취를 남겼으며, 미당 서정주는 한국근대 시문학사에 발자취를 남겼다. 이 대목에서 반외세 기치를 높이 올린 동학농민혁명 내지는 그 지도자와 친일행위자를 어떻게 함께 거론할 수 있는냐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주가 음양의 기본이치에 따라 운용되듯 한 사람의 삶이나 지역, 국가의 역사 또한 필연적으로 명과 암이 공존한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대하는 것에서도 열린자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들어 ‘어둡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역사’를 역사문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현장을 정비하여 가해자에게는 반성적 기억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추모와 비극의 방지를 위한 경계적(警戒的) 기억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봉준생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창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역사문화유산들과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환경,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과 토산품 등을 거미줄처럼 씨줄과 날줄로 엮어서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창지역 역사문화관광의 핵심 키워드를 메시아의 고향으로 설정하고 [전봉준생가=메시아(파랑새) 숲, 선운사마애불=메시아의 은거, 무장기포지=메시아의 출현] 등으로 스토리를 축으로 한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해야 한다.

“메시아 파랑새를 찾아서”를 주제로 전봉준생가→손화중도소(성송면 괴치리)→무장기포지→선운사마애석불→손화중 피체지(부안면 안현리)를 기본코스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방문객들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고창지역 역사문화유산과 빼어난 자연환경을 융통성 있게 결합시켜야 한다. 기본코스에 연계시킬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으로는 전봉준생가와 근거리에 있는 모양성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군, 무장기포지·여시피봉과 근거리에 있는 청보리밭, 무장읍성의 진무루와 객사, 마애석불과 선운사, 그리고 손화중피체지 근거리에 미당문학관과 인촌 관련 기념시설물 등이 있다.

특히, 강조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전봉준생가와 고인돌군(群)을 순회할 수 있는 걸기코스 개발을 통해 그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선운사(마애석불)→심원→해리→공음(기포지)로 이어지는 서해바다와 그 바다를 끼고 자리한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친환경관광코스(예, 자전거 관광도로)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메시아 파랑새의 고향으로 정비되는 전봉준 생가마을은 소나무로 고속도로변이 차폐되고, 생가 터를 중심으로 역사광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생가터를 둘러싼 일원에는 백일홍 나무 숲이 울창하게 조성된다. 여기에 백일홍 숲과 마을 곳곳에 파랑새를 상징하는 이미지 매개물로 솟대가 설치된다. 이 솟대는 처음에는 해당 관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시작되지만 차차 방문객들이 스스로의 기원을 담아 솟대를 직접 제작하여 생가마을 곳곳에 게첨하는 등의 참여로 완성되어 가는 패턴이다.

따라서 역사광장 정자마당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쉼터이자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해당주민들은 이곳 정자마당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半완성제품 솟대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방문객들은 반제품 솟대를 구입하여 자기들의 염원을 담아 완성한 후 백일홍 숲에 설치하는 것으로 참여하게 한다.

나아가 파랑새 솟대를 디자인하여 전봉준 생가마을의 고유한 관광상품으로 의장등록을 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야 한다.



예시 : 솟대 상품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기념시설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

1894

배승현 조각가

사)구상조각회 운영위원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사)목우회 조각분과 위원장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기념시설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

배승현 조각가

(사)구상조각회 운영위원

(사)한국미술협회 회원

(사)목우회 조각분과 위원장

- I.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조성의 의의와 목적
- II.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 III. 계획대상지의 현황 분석
- IV. 기존 조성 상태의 문제점
- V. 개선계획 및 활용 방안
- VI. 마무리의 말

I.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조성의 의의와 목적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민족이 직면한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 격변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지던 사회 체계 개편의 조짐 속에서 민중계급의 존재성이라는 새로운 민주 사회적 가치를 부각시킴과 함께, 민족적 주체 의식의 수호의지가 거대한 흐름으로써 시대의 한 장을 형성하게 한 위대한 거사였다.

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1차 생산자이고, 국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중 세력이며, 민족 정신적 측면으로는 전통 계승 주체인 농민들이 역사의 주도자로서 항쟁의 첫 발걸음을 시작한 무장기포지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지향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국제화 속에서의 자주의를 자각하고자 하는 현대 사회의 지향점 설정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당시 동학농민혁명 항쟁의 성패 결과를 떠나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부단하게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의 발원점으로서, 국민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되돌아보는 근원적 통찰 대상으로써, 끊임없이 대두되는 국제 질서의 변동요인 속에서 견지해야 할 국가적·민족적·개인적인 주체 의식 발현의 전례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유산은 지속적으로 유지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인 무장기포지는 우리 민주화 운동, 농민 권익 의식, 민중 중심 사회관, 주체적 자아, 평등, 자유 등의 근원적인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성지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차원에서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그 긍지감의 고양과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널리 알리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무장기포지의 효율적인 성역화 기념공원 조성과 가치있는 상징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이다.

II.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역사 기념공원 조성과 그 상징성 부여의 설치물 건립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들이 따른다. 과거의 역사적 유산들이 오늘 날에 직접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하여 다만 일반적인 관례 적용의 기념물 설치 사업이나 사적지 보존 사업 만으로는 점점 침해해지는 현대의 정보 범람 상황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과잉 속에서 무의미한 노력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국제화 시대 속의 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의 세대들에게는 지식 습득의 필요량 증대에 밀려 이제는 교육의 현장에서조차도 역사 교육에 할애되는 비중이 점점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놓치면 안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교훈의 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사적 지 정비와 기념 상징물 설치의 물리적 확고성 위에 합리와 효율을 아우르는 제고를 통한 반영으로서 내용적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목적하는바 인지확산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 시대와 국제화 추세의 다양성에 부응하여 제반 양상에 동승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홍보와 교육의 노력에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전통적 기본 방식의 기념사업에 있어서도 새 시대에 발맞추는 새로운 창의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적지 성역화에 준한 기념공원 조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전

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 번째 :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가시적 효과와 기념성 및 상징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타내는가의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두 번째 : 지역성에 의거한 배려와 주민들의 현실적 삶과 상호적 보완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기념물이 수준 높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하여 기념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격의 상승을 부여하고 시너지 작용을 이루어야 한다.

네 번째 : 역사기념공원의 활용성 및 이미지 부각의 측면, 그리고 현실 상황에 적응하는 창의적 관점을 수용하며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능동적 대처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 하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다음과 같은 적용 과제 사항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가) 유적지로서의 의미조건, 즉 특정 역사 사실의 상기와 재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라는 점에서의 사실성과 고유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그것은 단순히 터를 구획하여 유지하고 명문을 새긴 비를 세우는 정도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시대성, 상황성, 지역성, 인물성 등이 망라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자체가 웅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점을 활용한 교육적 측면의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하며 피학습자에게 긍지감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 및 기념물의 설명문에는 대체적으로 과거 한자문화권이었던 원인으로 인하여 현대의 신세대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전문가적 용어들이 배려없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그런 용어들에 의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는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으나 알려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이 필요해진다.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비문자적 수단(조형물 등)에 의해 전달되는 이미지성 학습효과에 수반하여 쉬운 문맥과 용어에 의한 구체적 전달이 후 대에게 긍지감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높일 것이다.

다) 수준 높은 예술성을 통하여 정서적 측면에 감동을 주는 ‘이미지 각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 미술적으로 첨예한 형식적 세련미라든가 그 반대로 누구나 일견에 이해할 수 있는 원초적 방식의 설명적 접근 등으로도 높은 수준의 예술성을 어느 측면 으로든 거둘 수 있겠으나, 무장기포지 역사기념의 특성을 드러내는 내용적 측면과 예술작품 본연으로서의 형식성 가치가 동시에 충족되는 적절한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기념물 조형의 가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상호 보완적으로 가시화될 때에 의미를 갖게 된다.

라)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함께 원거리에서의 주목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적 관점이 공히 충족되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각적 풍경으로서의 환경과 주변 상황으로서의 환경, 즉 인근의 마을 및 도로 사정, 대상지의 지면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갈등의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한편에 멀리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랜드마크화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그것이 위압적인 느낌으로 되지 않도록 크기와 높이, 형태상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시각적 환경과의 조화라는 부분에서 숙고의 필요가 있다. 조화, 즉 어울림이라는 개념 상의 문제에 이르러서 대개의 사람들은 주변의 시각적 환경 요인으로부터 불거져서 독자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관념적으로 부조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경우의 예에서 볼 때 꼭 그렇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인류 역사가 남긴 대표적 모뉴멘탈 조형의 하나인 피라미드를 예로 들 경우 그것은 주변의 풍경으로부터 확고하게 드러나서 무미건조한 광역성 지평선에서의 시각적 기존 질서를 깨면서 활기를 일으키도록 의도된 경우이다. 물론 강력한 왕권국가의 권력과 부를 기울여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규모의 대·소를 떠나서 조형적 의도는 성공적으로 되었고, 이것을

사막의 황량하고 지루한 환경과 어울린 두드러짐 조화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피라미드의 환경과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잡한 도심의 빌딩 숲 속,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교통 표지물, 가로수 등의 수직상 승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 속의 한 곳에 솟대 조형물을 세워 놓았다고 가정할 때, 당연히 그 솟대 조형물은 잘 드러나지 않고 조형적으로 묻혀 버릴 것이다. 이 또한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것을 조형의 의도성을 잘 구현한 성공적인 조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 때로는 주변 풍경과의 어울림이라는 문제가 그 조형의 방식에 있어서 상호 대비법적인 구사를 필요로 할 때도 적지않게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마) 인본적인 관점에서의 규모와 배치를 배려하여 효율성과 친근성을 지향해야 한다.

- 내방객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역사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해야 하고 설치되는 구조물들은 인체비례와 인체공학을 참고한 크기와 구조를 견지해야 한다. 조형물과 안내 및 설명문 설치시에도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 등의 비지식인들에게도 접근이 쉬운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바) 지역주의적 관점을 넘어서 범국가적, 범인류적 차원으로의 열린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보다 중요한 것은 ‘민중의 뜻이 모인 의거’ 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부정한 권력에 대한 항거’ 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안위’ 의 문제이다. 또한 오늘날까지도 연관 이어지는 국가 간의 문제이며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평등권’ 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지역 애호 정신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한정 지어진 참여와 결과물의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사) 지역주민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게 하여 역사가 곧 현실로 관계지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사적지 해설가 및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관리 업무를 맡기는 등의 소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수용해야 하고 오히려 휴게 공간으로서의 배려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기념품 및 지역 특산물의 판매소를 설치해 보는 시도도 가능하다.

- 아) 인접 도로 통행 차량의 승객들이 쉬어 가는 휴게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사적지에 대한 인지를 유도해야 한다.**
- 파고라, 벤치 등의 휴식 시설과 화장실의 설치에 의한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장기포지에 대한 인지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고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지역 주민들의 소득활동과 안내자 역할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시도할 수 있다.

- 자) 내방 답사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동질 의식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 내방 답사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연구를 하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광장의 ‘대동의 장’의 경우 옛 성황당에서 처럼 소망을 담은 돌을 얹어 놓는 방식을 도입하여 참여의식의 유발에 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근처의 어느 곳에서도 돌을 주워올 곳이 마땅치 않다. 이 조형물의 의도 실효 조건은 삼례 역사광장 한 쪽에 돌들을 한 트럭쯤 부려 놓는 관리 주체의 사전준비가 전제된 조형의도이다. 어느 행사장에 비치된 방명록이나 낙서 판처럼 내방객이 자기의 이름이나 바램의 글, 감회 등을 써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글을 쓸 수 있는 시설(벽, 스크린 등)과 도구를 현장에 준비해 두어야 한다.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 지은 참여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조그만 나무숫대 모형의 해체된 상태의 부속물들을 만들어 무장기포지 한 편에서 부담되지 않을 가격으로 판매하면 뜻있는 내방객들이 간단하게 조립한 숫대에 이름을 써 넣거나 글을 써서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의 어느 곳에 소망을 담아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한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경우 얼마 지나서 무장기포지에 작은 숫대들이 가득 꽂혀져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숫대 외에도 바람개비, 리본 등의 소도구도 가능할 것이다.

차) 다만 존재함으로서 의미를 갖는 수동적 입장의 기념시설 관례를 탈피하여 내방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능동적 요인과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무장기포지가 의미를 갖게 되는 어느 날의 행사 때, 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련의 목적에 의한 답사객의 내방, 학교 등의 단체 견학 등에 의한 발자취 외에는 한가한 그런 역사기념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스로 가보고 싶게 하는 어떤 요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예로서, 최근의 대중문화 추세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양상으로서 디지털사진기의 보급과 이동통신기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한 영상 정보 소통의 급속한 파급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는 수많은 사진 동호회가 생겨났으며 그들은 좋은 영상미의 소재를 찾아 어디든 간다. 이 경우의 예에 대응되는 능동적인 환경 조성으로서는 좋은 포토존을 형성시켜 놓는 아이디어의 실현을 필요로 한다.

설치되는 조형물이 기념물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할 것이 아니라 포토존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 진다거나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 꽃(이를테면 진달래라든가 구절초 등)이 만발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하여 성공을 거둘 경우 그 파급의 홍보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등의 영상자료들은 인터넷이라는 전달 수단을 통하여 순식간에 퍼져나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능동태적 설계를 요구하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이와는 다른 방법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작은 공연을 열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하여 판소리, 풍물패 등의 공연과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다거나 자전거 탐방로 중의 중간집결지 등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는 등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현장이라 하여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카) 고창 지역의 이미지 특성화 계획과 무장기포지 및 동학농민혁명 관련의 이미지 형성 계획의 연관성 선상에서 협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고창 지역의 대외 이미지 특성화 자원은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농산물, 수산물, 관광자원, 문화자원 등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역으로서의 역사자원은 고창을 특성화 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범 국민적 차원의 이미지 플랜과의 조율에 자칫 혼선이 발생하여 이원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편지역적 지향과 초지역적 지향이 한 방향으로 평행선을 형성할 수 록 효율성 은 증대될 것이다.

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조성물의 영구성과 순환성에 대한 작용을 예견하고 검토해야 한다.

- 무장기포지 역사기념 사업은 일반 기념탑이나 조형물 설치의 경우에 더하여 유지 관리의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 계절과 기후에 따른 조경식물에 대한 관리의 기본사항이며 휴게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 동파에 대비한 조치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답사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개념의 시설물이 경우 더욱 더 각별한 사전대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Ⅲ. 계획대상지의 현황 분석

가. 계획지의 현재 상태

- ①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4번지 일대
- ② 용도 유형 : 역사기념공원
- ③ 넓이 : 8,065m²
- ④ 기 조성시설 : 기념 광장, 무장기포 기념 조형물,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비, 무장창의 포고비, 고창주 추모비, 농민군 훈련장상징 목말뚝, 당산나무, 소나무 3그루, 정자, 화장실, 주차장, 기타 조경수 및 잔디 등

나) 계획대지 주변의 환경

- ① 도로 현황

- 계획대지의 정면이라 할 수 있는 남서쪽의 변에 인접하여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선운대로)가 있어 주도로로써 역할하고 있으므로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 계획대지 서북쪽의 인접에는 하천이 있으며 계획대지와 사이에 1차선 넓이의 제방 도로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 계획대지의 북쪽과 동북쪽 변에 접하여 비포장 마을길이 형성되어 있어 4변에 모두 도로가 둘러싸고 있으므로 인근과 분리된 독립 공간을 이루도록 역할하고있다.

② 주변 지형

계획대지 및 그 주변은 한국 농촌의 일반적인 평야지대로 되어있고 약간의 높낮이를 보이고 있다.

- 서북쪽과 이어져 남쪽 정면으로 비스듬하게 하천이 흐르고 있으나 운하처럼 제방으로 구획지어진 인공 기획 하천이므로 자연풍광으로 역할하지는 않고있다. 하천의 건너편에는 매립지대형의 평평한 전답지대이다.
- 계획 부지의 정면에서 볼 때, 뒤쪽(북쪽과 동북쪽)에 농가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낮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 계획대지의 가까이에 작은 야산들이 분포되어 있으나 계획대지에 근접했을 경우에는 파악이 안될 정도로 낮게 숲을 형성하고 있다.
- 계획대지의 서쪽 모서리 가까이에 2차선 도로에 속한 교량(구암교)이 있다.

[도1]

무장기포지 주변 환경도



IV. 기존 조성 상태의 문제점

가) 무장기포지 역사 공원 앞의 도로를 차량으로 지나갈 때의 주목성을 득하지 못하여
 승객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도록 되어 있다.

- 차량에서 하차하여 공원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도 그곳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도로변에 위치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부지불식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손실과 다름없다.

나) 주차장이 부지 전면의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온 답사객이 아닌
 일반 차량의 정차 휴식객에게는 공원 내부를 돌아 보도록하는 유도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주차장을 지금의 남서쪽 2차선 주도로변이 아닌 서북쪽변의 제방도로를 따라 종으로 설치하거나 현 부지의 뒤쪽 또는 좌측의 농지를 매입하여 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념 조형물은 일견으로 감동을 주는 임팩트의 요소가 부족하며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의 상징성을 강하게 웅변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왜곡전달의 이미지도 내포되어 있다.

- 언뜻 보아서는 종교 관련의 내세관을 표현하는 듯한 불꽃 모양과 오밀조밀한 군상의 구성이 현실성에 바탕을 둔 동학농민혁명의 장대한 대서사적 이미지와는 거리감이 없지 않다. 또한 메인조형물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전봉준을 표현한 듯한 인물상의 맨상투(갓을 쓰고 있지 않음) 차림이 고종과 정황 논리에 맞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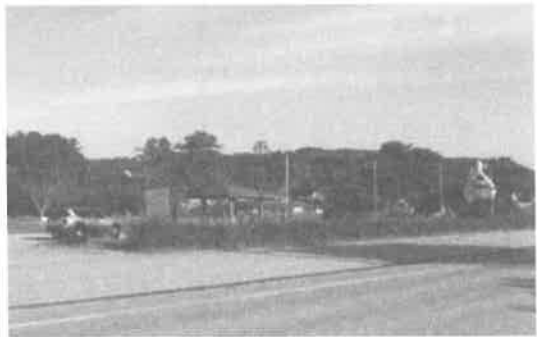
전봉준 두상부의 뒤쪽에 뚫린 둥근 구멍이 종교화에서 신격화의 기법으로 사용하는 광배(후광)처럼 보이므로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가 내포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으며 자칫 왜곡의 우려까지도 있다. 마치 신격화된 존재에게 갈구하는 신도들의 군상처럼 표현되어 있다.

라) 화장실의 위치가 부적절하다. 공원 부지의 맨앞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화장실이 주객처럼 되어 있고 건물의 디자인도 무장기포 기념공원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 화장실 용무가 필요한 전면 도로의 차량 이용자들이 도로변의 주차장에 정차 후 화장실만 사용하고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출발해 버리는 장면이 많이 목격 된다. 주차장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조정하여 공원 내부를 가로질러 가도록 조치함으로써 무장기포 역사의 알림에 기여되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의 위치를 옮겨 다시 건축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으로 비합리적이라면 주차장의 위치를 옮기고 도로변에서 직접 화장실로 들어갈 수 없도록 동선을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실 건축을 다시 할 수 없다면 현 상태 위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디자인을 개선해야 한다.



[사진 1] 무장기포 기념 조형물



[사진 2] 도로에서 본 기념공원 전면부

마) 명칭(사인물) 사용의 콤비네이션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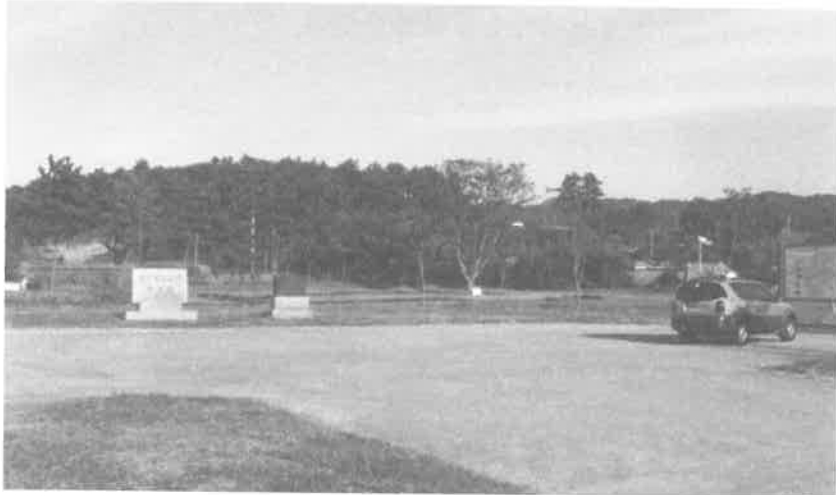
‘무장기포지’라는 말을 사용하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지적 연결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기 어려우며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는 말만 사용하면 지역성과 구체적 사건을 지목하지 못한다.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무장기포 기념공원’으로 두 가지 용어를 함께 동반시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바) 기념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설치물들과 시설물 전반의 위치와 동선, 크기와 밀도 등에 있어서 조화감이 떨어진다.

- 건물이나 그 밖의 다른 시설 등이 자리했다가 이전한 뒤의 빈터처럼 다소 허전하고

질서감이 없으며 치밀하게 연구하여 배치하고 조경한 흔적을 느끼기 어렵다. 공원 내의 이곳 저곳을 거닐며 살펴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사진 3] 공원내부 전경

- 사) 현재 상태의 기념공원 부지 면적은 기포 당시에 수천명에 달하는 규모의 농민군 집결지였음을 연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 조속히 기념공원 후면부(북쪽)와 우측(동남쪽)의 농지를 매입하여 역사의 현장다운 규모의 사적지 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아) 기념공원 전체의 분위기가 정적(靜的)이어서 기포 당시의 의기충천, 비장감, 역동성 등의 감성적 전달을 하고 있지 못하다.
- 설치물, 조형물, 조경 등을 통하여 활기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같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주 우금치의 경우나 보은 북실의 경우처럼 패전의 비애감과 다른 각도의 감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 무장기포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이다.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했던, 그러나 진지하고 경건한 기운이 표현되어야 한다.

자) 기념공원의 북동쪽 모서리 근처에 위치한 정자와 그 옆의 ‘갑오 농민군 고창주 추모비’가 주변의 지대보다 낮은 높이 위에서 있으므로 소외되어 있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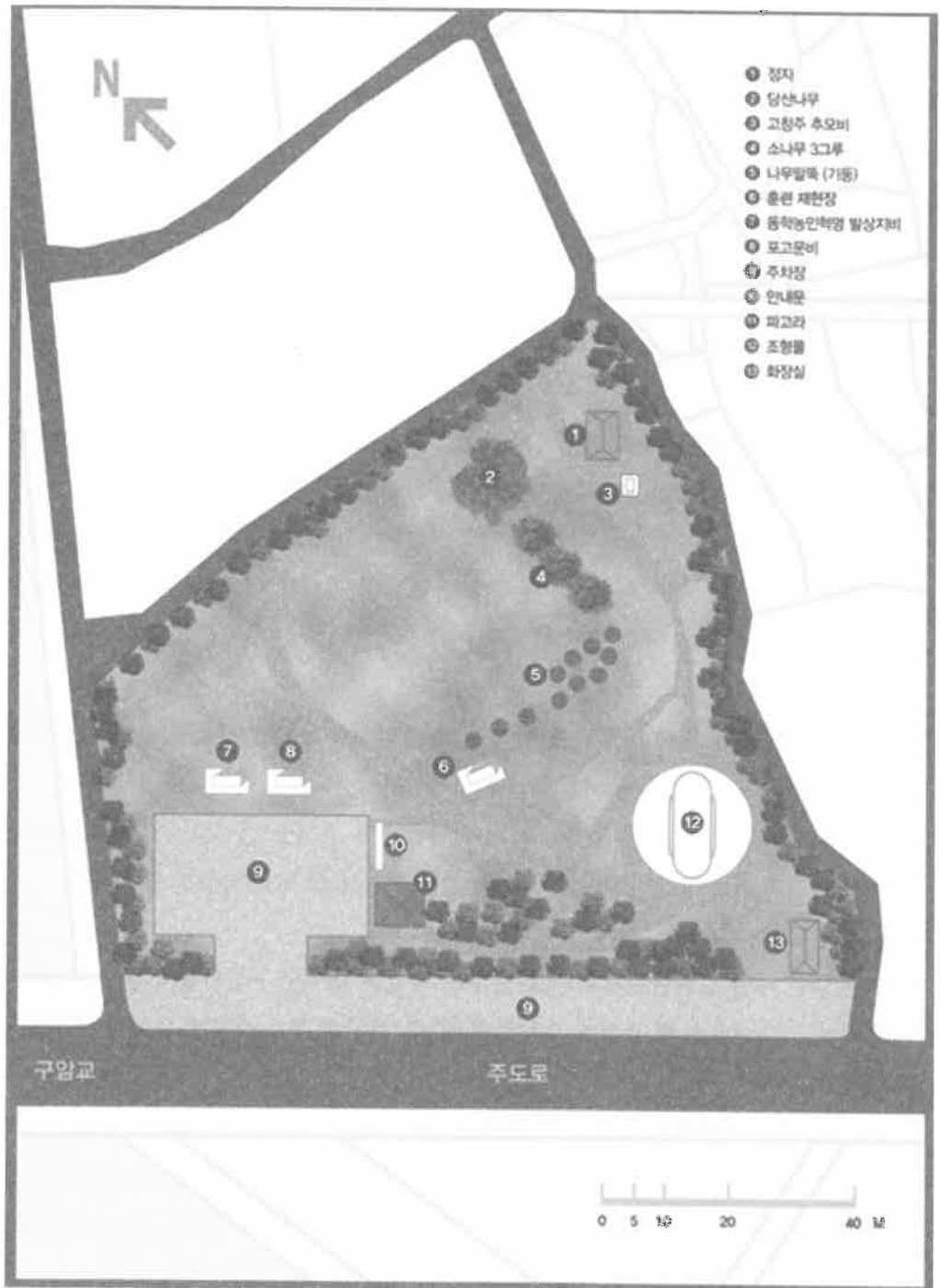
- 정자와 고창주 추모비 주변의 지대를 완만하게 경사 각도를 조절하여 밑으로 갑자기 주저앉은 듯한 상태를 호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 4] 가라앉아 보이는 정자와 추모비

[도2]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기존시설물 배치 현황도



V. 개선계획 및 활용 방안

앞 단락에서 논고한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에서 도출된 내용과 ‘기존 조성상태의 문제점’ 에 의거한 개선책들을 반영하도록 기본설계(개념설계)의 방향을 잡는다. 가능한 한 기존시설물을 현재의 상태에서 없애거나 옮기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획한다. 설계의 기본 지향점은 크게 「역사성과 상징성 표현의 강화」, 「원거리 가시인식성 확보」, 「활기감 및 밀도감 고양」, 「인공적 조형감의 자제」, 「이미지 각인효과 시도」, 「현실 활용도 배려」, 「보행자 동선순환의 원활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설계에 반영하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차공간의 위치를 기존의 전면도로변으로부터 서북쪽 제방도로에 면하도록 변경한다.

- 전면도로 운행의 차량들과의 관계상 주차의 원활과 위험 요인으로부터의 분리 및 공원 내로의 진입동선상의 편의성, 기념공원 관람으로의 유도과 그를 통한 역사인지의 효율화 등을 위한 선택이다. 또한 추후에 현재의 기념공원 북쪽의 대지로 확장될 경우를 예상할 때에 특히 더 필요한 조치이다.

나) 기념공원 전면부의 주 도로변에 심겨진 키 큰 나무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도로에서 공원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저해요인을 제거한다.

- 전면도로를 지나는 차량 안에서 쉽게 기념공원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함과 동시에 폐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시각적 개방성을 이루게 하는 조경상의 방안이다.

다) 조형물은 메인 조형물로서의 격을 갖추는 새로운 건축적 구조물을 부지의 중앙부에 설치하고 그 구조물에 조형을 부가하며 (부조, 선각화 등), 내방객 참여의 의미를 갖는 장치를 가한다.

- 본 기념공원 개선계획의 설계 안에서 하나의 구체적 예로써 제시하는 조형물의 기본적인 구조개념은 나선형으로 상승경사로를 이루는 낮은 탑(가로 20m 내외, 세로 30m 내외, 높이 7m 내외)의 형식으로 한다. 지면으로부터 상승하여 말려 올라간 벽체구조에 의하여 전체모양의 기본 골격을 형성시키고 안쪽에 토사를 채워 넣어 사람이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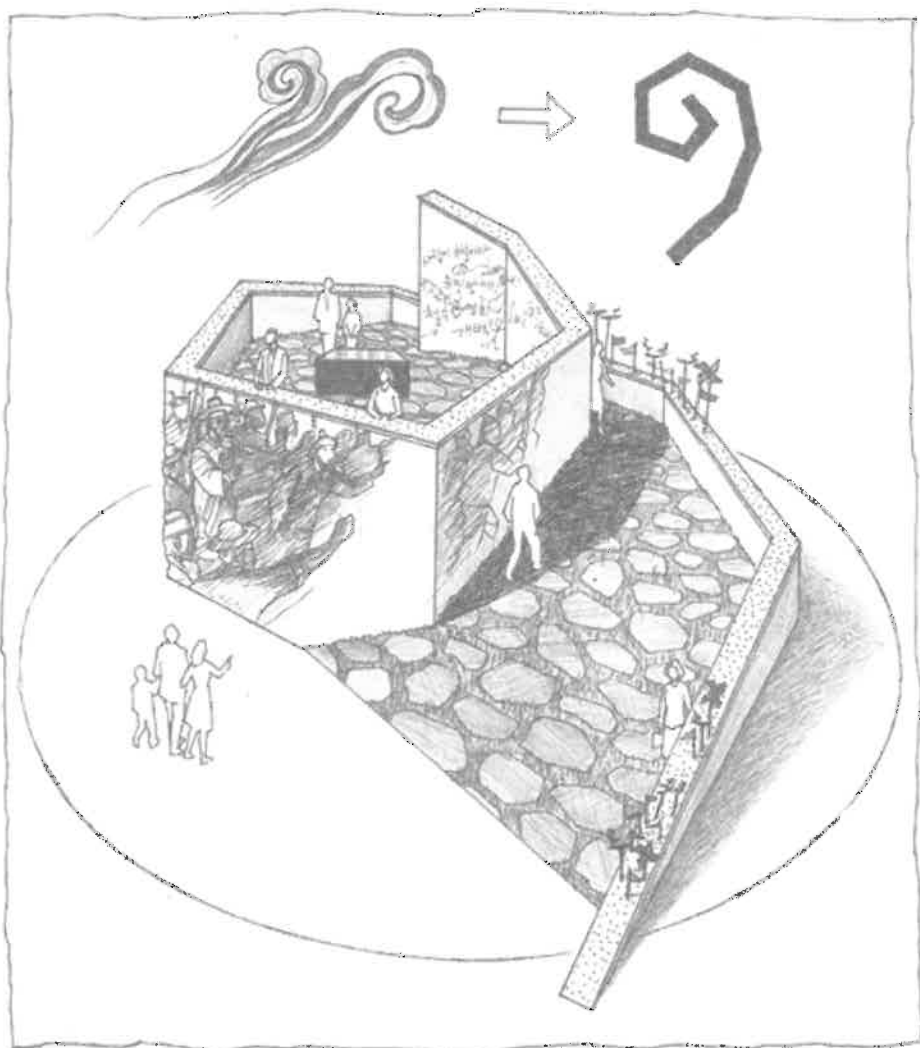
상단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한다. 상단부에 형성되는 일정 넓이의 중심부에는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포고문을 간결한 디자인의 비에 새겨 설치한다. 벽체 구조의 외벽부에는 부조 및 선각으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관련의 표현을 기하되 벽면의 중간 중간에 내방객들이 낙서를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마련해 둔다.

벽체의 두께에 의하여 생겨지는 벽의 상부에는 내방객들이 소형 깃발, 솟대, 바람개비 등을 꽂을 수 있게 많은 구멍들을 뚫어 놓는다. 말려 올라간 구조물의 평면도상의 형태적 의미와 근원은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구름, 물결, 식물 등 유기적으로 생동하는 기(氣)를 표현하는 양식화된 문양에서 차용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근대 역사 속에서 생성하여 한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며 면면히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에게 닿아있는 정신성의 흐름을 상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채택하였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정신성의 유기적 연결선 상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인식할 때 그것은 승리의 역사이다. 조형구조의 상단부로 점점 상승되는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그 정상부에 승리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 창의를 글이 경건하게 설치되어 있다. 기포문의 글귀에서 느껴지는 조상들의 뜻처럼 지대가 높여진 조형 물의 상부에서 관망되는 드넓은 풍광과 어우러져 가슴으로 전해질 감동과 긍지의 정서를 의도한 조형이라 할 수 있다. 그 구조는 또다른 의미로 높이, 멀리, 거시적 관심으로 바라보며 지켜내야 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망루를 상징하기도 한다.

말려 올라간 구조물의 외벽면은, 토사를 채워 넣은 내부벽이 난간 정도의 높이만 드러남에 비하여 벽 전체의 높이와 길이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넓은면적을 형성한다. 펼친 그림으로 가정하면 긴 삼각형의 면적으로써 2m 정도의 높이에 이르는 부분부터는 부조나 선조의 미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 부분에 기포 당시의 농민군들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이사이에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 두거나, 미술표현 자체에 낙서까지도 조형의 한 요소로써 수용하는 개념의 형식으로 작품화 할 수 있다. 구조의 내부, 즉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며 난간 정도의 높이를 형성하는 내벽의 상단부는 벽 두께만큼의 넓이로 긴 띠 모양 면을 이루게 된다. 이

위에 목재를 얹어 고정하고 수많은 구멍들을 뚫어 놓아 작은 솟대 또는 작은 깃발, 바람개비 등을 꽂을 수 있게 준비하여 내방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와 의미를 조형의 요소와 상징성으로 받아들인다. 내방객들이 꽂아 놓을 소형의 솟대, 깃발, 바람개비 등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다. 소형 솟대, 바람개비 등에는 이름이나 소망, 감회의 글 등을 적은 리본을 달 수 있게 하고 소형 깃발에도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직접 글을 쓴 것으로 설치하도



[도3]

중심조형물 설계계획도(예시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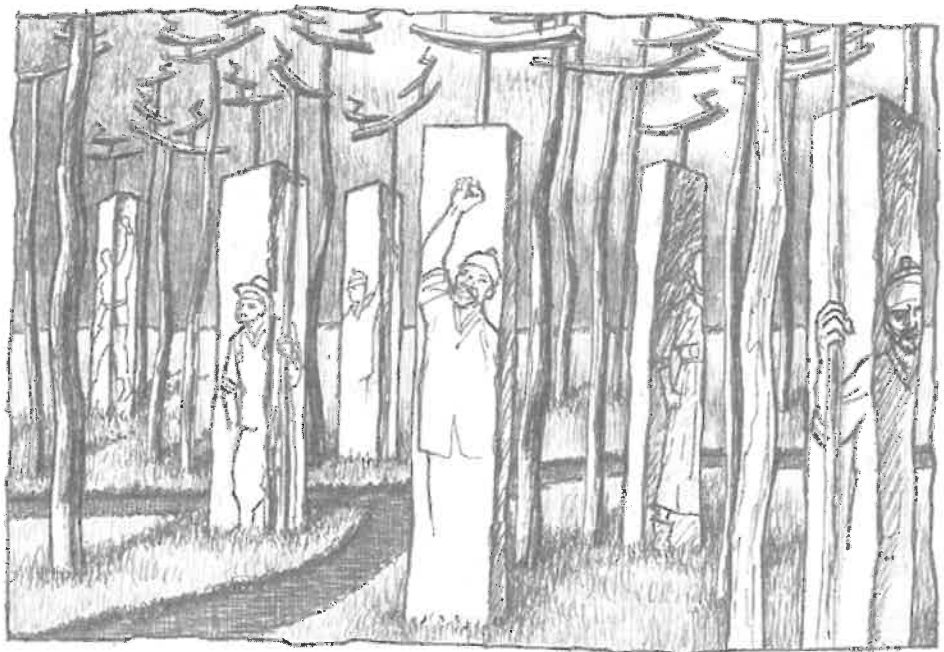
록 하여 개인성의 의미와 역사기념의 의미를 연결 짓는다. 이 조형물의 계획 의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조형물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완성되는 소망의 집적체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와 현실과 미래향의 파노라마가 조형물의 소용돌이형 구조안에 함축될 것이다.

라) 메인 조형물이 새롭게 비중 있는 규모로 서게 되면 기존의 조형물은 그 위치적 요인으로 서나 크기의 요인, 주목성의 요인에 의하여 자연히 부조형물로서의 의미와 역할로 약화 될 것이다.

-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왜곡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의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마) 기념공원 대지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석재와 금속재의 동반 사용으로 제



[도4]

숫대숲 예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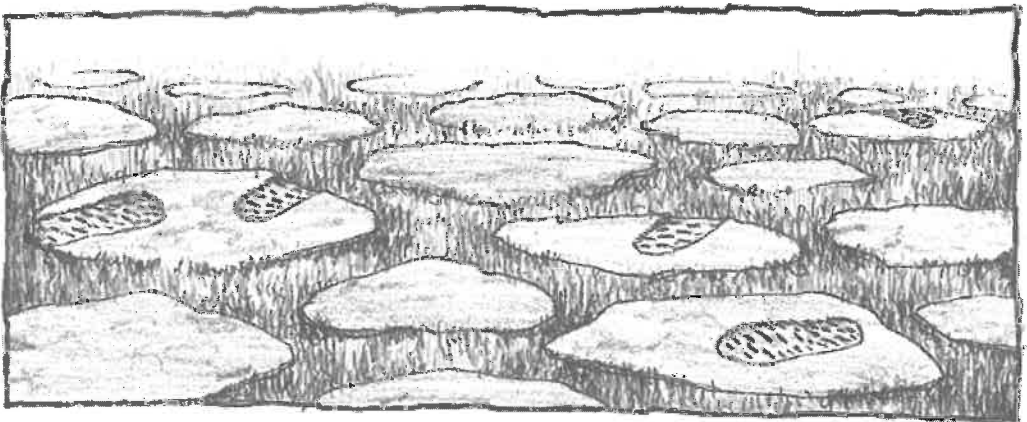
작된 솟대들을 다수 세우고 사이사이에 목재 솟대들도 다수 세워서 솟대숲을 이루게 한다.

- 돌을 사용하여 제작한 솟대의 경우 돌기둥의 면에 메인조형물 외벽에 조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농민군의 상을 새기거나 부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 하나의 솟대가 농민군으로 의인화되는 상징화의 연출이 가능해진다.
- 솟대숲의 사이로 오솔길을 형성시켜서 내방객이 솟대들 사이에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싶게 하는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바) 기념공원 내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지역의 바닥 포장을 될수록 친환경 자연성으로 계획한다. 보폭을 계산한 간격으로 철판석을 깔고 철판석들 간의 사이에는 잔디를 식재한다.

- 평평하게 포장된 곳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에 비하여 철판석이 포장된 곳을 보행 할 시에는 약간의 조심성이 요구된다. 그것이 오히려 징검다리를 건너는 듯한 자연성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람들의 발길로부터 잔디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수많은 농민군의 집결지였던 기념공원의 의미와 연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을 예감한다. 실제로 바닥에 깔릴 자연스러운 형태의 돌판 위에 당시의 농민군 발자욱(죃신)을 새겨 군데군데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한 사적지 상징의 조형 방법론이다.



[도5]

발자욱 새김의 철판석과 잔디

사) 계획대지 내의 중요한 조경 계획으로서 진달래와 구절초 꽃을 이용한 포토존 형성을 시

도한다.

- 기념공원 녹지 중의 많은 부분에 진달래와 구절초를 심어 이른 봄 무장기포 당시의 계절과 가까운 시기에 생동의 기운으로 진달래꽃이 만발했다가 저물어가는 가을에 구절초꽃의 겸허한 감성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뜻을 담는다.

꽃 선택의 기준은 우선 우리나라의 산야에 흔하게 분포하여 강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는 민초 농민들을 닮은 꽃이어야 하고 단 한송이의 꽃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는 꽃이 아닌 군락 형성을 통하여 장관을 이루는, 즉 군집의 아름다움을 말해주는 꽃이어야 한다. 그 두 가지의 요소가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상징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공원부지 전체에 걸쳐 가득히 핀 꽃의 장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들게 하는 역할과 함께 디지털 온라인을 통하여 확산되는 이미지 홍보의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아) 주차장에 인접한 일정의 장소에 관리동 및 특산품 판매소와 화장실 용도의 건물을 지어 운영하도록 하여 인근 마을 주민의 소득 활동과 함께 안내 해설가의 대기 장소, 관리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건물의 출입구를 주차장과 반대의 방향, 즉 동쪽의 공원 내를 향한 쪽으로 나도록 설계하여 이용자들이 공원을 전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건물 내의 판매소에서는 간단한 잡화 필수품 및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하여 공원 전면(사실상 개선계획에서는 전면이 서쪽 방향으로 바뀌었음)의 선운대로를 지나는 차량 승차객들의 휴게소 역할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자) 기념공원의 남서쪽변 도로(선운대로)가의 양측 모퉁이에 장승형의 동학농민군상을 세우고 무장기포지 공원명문을 새겨 넣어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탑승자들이 공원의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한다.

- 석재를 사용하여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제작한다. 장승형의 형태를 응용하는 의도는 장승이 가지고 있는 지킴이로서의 의미를 빌려오기 위함이다. 공원의 양쪽에서 쌍을 이룬 지킴이가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수호를 상징하며 서 있게 한다. 민속적인 것이고 세워지는 형식이 유사한 것이라도 장승은 솟대와 비교하여 그 의미의 방향이 다르다.



[도6]

동학농민혁명 사적지 표식조형물 통일화 방안(제안)

숫대가 현실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이상·기다림 등을 포함한 향 미래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반하여 장승은 현실에 이루어져 있는 것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수호의 기원을 담고 있다.

그래서 숫대는 마을의 내부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승은 마을의 외곽 또는 입구에서 지킴이로서 세워진 것이다.

기념공원의 내부에 동학농민혁명이 이룬 업적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겨 이상을 향한 상

징(파랑새, 솟대)들로 구성되어지는 한편에, 외곽에는 이 모든 것들을 수호하고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세웠던 민족자주정신 수호자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을 의미하는 장승이 굳건히 지키고 서 있게 하는 것이다.

차) 기존 기념공원의 북쪽에 인접한 새로운 대지로 공원을 확장하게 될 경우 그곳에는 넓은 터를 형성시켜 다수의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 있게 준비한다.

- 마당놀이, 풍물패(농악)공연 등과 그 외의 문화적 이벤트가 이곳에서 열리게 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동의 장’ ‘어우러짐의 터’ 역할을 하게 될 공간이다. 전체적으로 중심부쪽이 약간 낮추어진 접시모양의 원형 터를 조성시킴으로서 중심부는 무대역할로 공연 및 교육, 연설등이 이루어지게 하고 외곽의 경사면은 관객석의 구실을 하게 된다. 접시 모양의 바깥쪽 녹지와외의 경계부분에는 파고라를 설치하고 다년생 넝쿨 식물을 식재하여 그늘을 형성하도록 조치한다.

관객석 역할부의 철편석 깔기와 잔디식재의 구성을 방사선 모양으로 하여 ‘사발통문’의 상징을 담아 평등하게, 모두 함께, 널리 퍼져가는 동학농민혁명 창의의 이념이 구현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이 ‘열림마당’의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활성화를 이루게 되면 이를 보조하고 관리함과 함께 역사 알리를 적극화, 구체화 하기 위한 기념관의 건립이 필요해지게 된다.

계획부지의 동북쪽 모서리부 열림마당의 뒤쪽에 기념관 건립지를 예비하되, 본 계획에서는 우선 녹지조경으로 마무리하여 추후에 예산과 기획의 확보에 따른 진행으로 이루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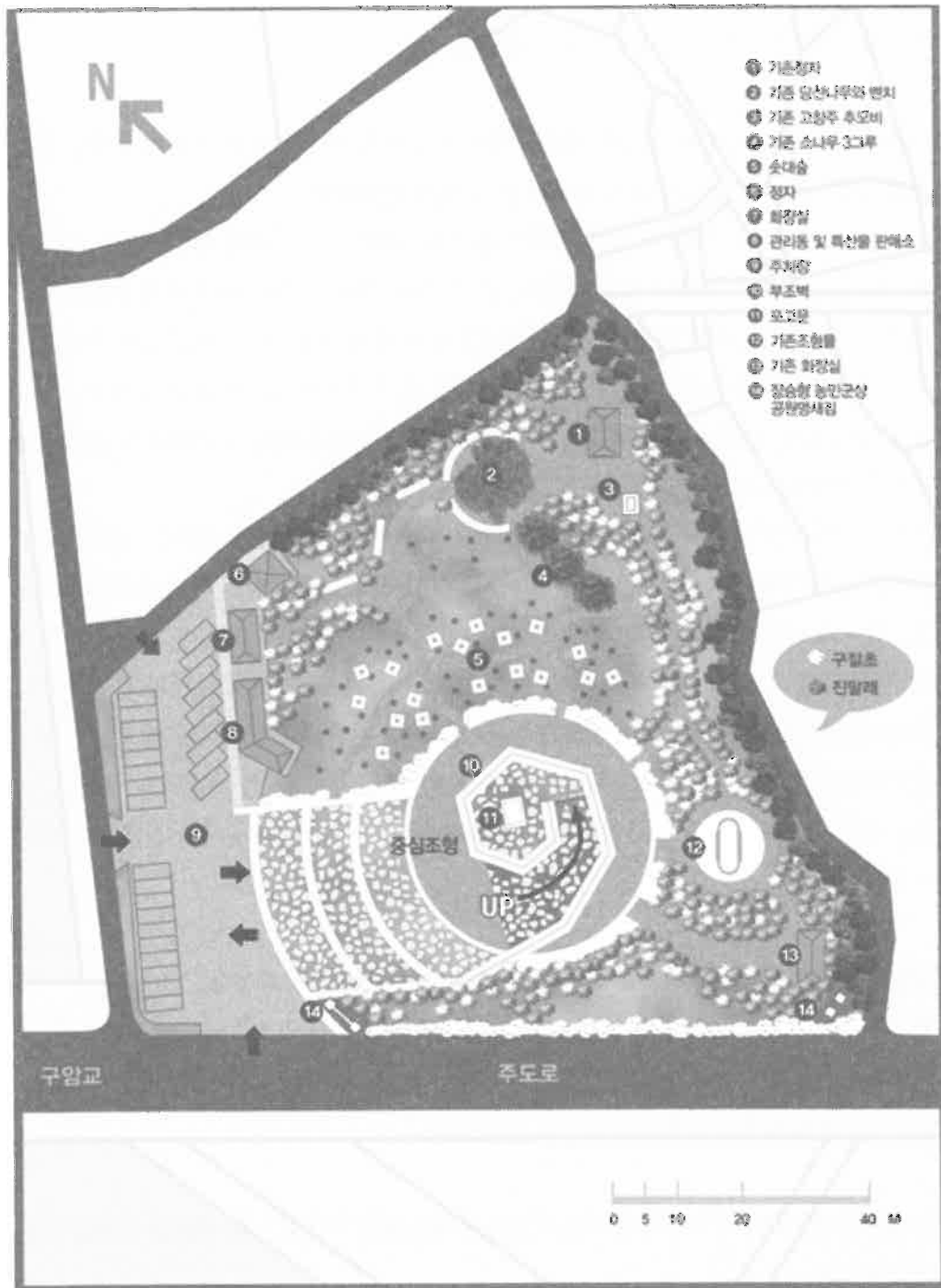
카) 기념공원의 여러장소에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로서의 기능을 부가한다.

- 될수록 공원부지의 중앙부로 부터 떨어져 있는 외곽쪽으로 설치하되 앉아있는 동안의 중앙부를 향한 관망성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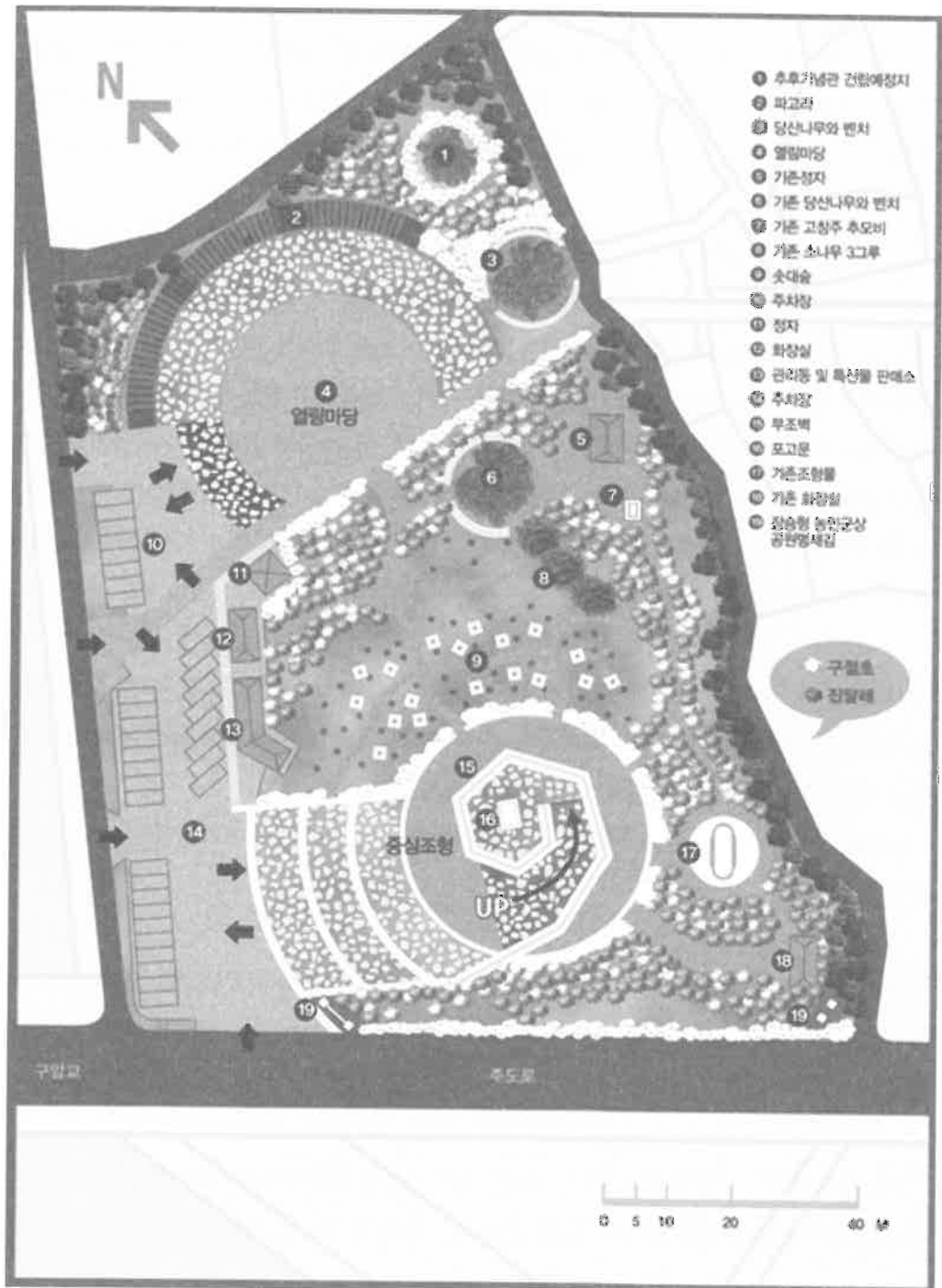
당산나무의 둘레에도 원형으로 벤치를 설치한다.

타) 동선상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흐름의 원활성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조성한다.

[도7]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개선계획도 A(기념공원 기존부지 내)



[도8]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개선계획도 B안(기념공원 기존부지 내)



VI. 마무리의 말

앞에서 논고한 바대로 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기념시설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공원조성일반과 기념물 설치를 포함한 무장기포지 해당의 고유사항에 걸쳐 설계적용의 필요사항을 언급하였고 그에 부응되도록 구체적인 개선안과 새로운 추가의 안을 제시하였다.

본 계획은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 조성에 전제되는 제반 요구조건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 예시이다. 실제로의 시행에 있어서 본 계획과는 다른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론이 구사될 수 있으며 그에 영향이 미치는 요소는 지역적, 환경적, 시기적 측면으로 다 방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 중에서 본 논고에서 언급되지 못한 것들은 매우 많으나 특히 염두 해야 할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주관체, 즉 기념사업회 및 사적지해당 지자체의 기념사업 시행방향과 기념공원 조성계획의 상호 적용 관계이다. 기념사업의 시행책에 의하여 기념공원 조성의 개념설정과 운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기념공원의 구체적 조건이 기념사업의 방향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 상호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충분한 검토와 예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그 결과 도출되는 계획은 그 효율성에 있어 최대치의 시행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된 시행계획은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계획외적인 요인의 개입을 신중히 해야 한다.

더이상 관례적인 기념물들이 이 땅에 서게 되는 일, 다만 존재 시키는 것으로 의미를 두는 것은 다양성의 시대, 문화콘텐츠의 범람속에 있는 현대의 관점에서는 방기행위에 다름없는 일이다.

무장기포 역사기념공원의 조성과 나아가 고창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사기념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본 개선 정비방안의 미약한 제언을 보태며 기대한다.

단위 천원

항 목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기존공원 대지개선 및 신설	건축공사	400,000	200/㎡ X 200㎡ -관리동 및 특산물 판매소 - 화장실 및 기존 화장실 정비 - 정자
	토목공사	403,250	50/㎡ X 8,065㎡ - 터 닦기 - 주차장이전 설치 - 조형물 기초공사
	조경공사	806,500	100/㎡ X 8,065㎡ - 투수포장 - 벤치, 파고라 - 나무,잔디, 진달래, 구절초
공원확장시 신대지	조형물	950,000	중심조형물 숫대숲 장승형 표식조형 각 1식 철편석에 발자국 새김 포함
	설계감리	128,000	
	합계	2,687,750	
	토목공사	200,000	50/㎡ X 4,000㎡ - 열림마당 - 주차장 - 터 닦기
	조경공사	400,000	100/㎡ X 4,000㎡ - 투수포장 - 벤치, 파고라 - 나무,잔디, 진달래, 구절초 - 철편석
	설계감리	30,000	
	합계	630,000	
총계	3,317,750		

개별토론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연구」에 대한 토론

발 표 :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토 론 :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사 회 : 변주승 (전주대 교수)

변주승: 박준성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으로 계시는 이병규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두분에게 부탁 말씀드릴 것은 주어진 시간이 약 10분 정도입니다. 못다하신 말씀은 종합토론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입니다.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한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봉준 생가와 무장기포지입니다. 이들 유적지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비하고 활용해나갈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고창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박준성 선생님께서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연구」를 발표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준성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연구」는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많은 선생님들이 발표하고 정리해놓은 내용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발표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기념시설 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창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기념시설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발표를 해 주신 박준성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보완의 의미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성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황토재는 지금 탑이 세워져 있는 산등성이 꼭 대기가 아니라 탑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이로 난 고개였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황토재(황토현)이 정확히 어디인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황토재전투 상황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또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신 곳이 황토재라고 하시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토현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설명하시면서 '전두환이 같은 천안전씨라 전봉준 장군 유적지정화를 위선(爲先)사업으로 설정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라고 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전봉준장군이 같은 천안전씨라고 하셨는데, 이는 약간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해 브리태니백과사전 전씨 설명내용을 통해 보면 전씨는 모두 동조동근(同祖同根)으로 한 혈통이라고 합니다. 도시조(都始祖)인 전섭(全聶)은 백제 온조왕 때 공을 세우고 십제공신(十濟功臣)으로 환성군(歡城君)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오 늘날 대표적인 본관인 정선(旌善) · 천안(天安) · 옥천(沃川) · 용궁(龍宮) · 나주(羅州 : 羅城) · 경주(慶州) · 옥산(玉山 : 慶山) · 성산(星山) · 죽산(竹山) · 전주(全州 : 完山) · 감천(甘泉 : 安東) · 평강(平康) · 함창(咸昌) · 팔거(八) · 황간(黃澗) · 부여(扶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정선전씨는 전섭의 8세손 전선(全愼)을 관조(貫祖)로 하는데 신라 성덕왕대에 활약하였으며 그가 정선군(旌善君)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정선을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안전씨는 전섭의 16세손이며 정선군 선의 9세손인 전악(全樂)을 관조로 하는 성씨이인데 전악은 고려 태조가 견훤과 싸울 때 신숭겸(申崇謙)과 함께 전사하여 좌복야(左僕射)에 추증되고 천안부원군(天安府院君)에 봉해졌는데 후손들이 이를 연유로 천안을 관향으로 하여 계대하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완산전씨의 관조 전집(全集)은 전섭의 30세손으로서 고려 공민왕 때 침입해온 홍건적을 대파한 공으로 추충정난호성공신 봉익대부(推忠靖亂扈聖功臣奉翊大夫)에 책록되고 완산군(完山君)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전봉준과 전두환이 같은 전씨로서 뿌리는 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봉준은 천안전씨이고 전두환은 완산전씨이므로 전봉준과 전두환이 같은 천안전씨라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는 고부 신증리에 있는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을 설명하면서

‘전봉준 같은 농민군 지도자는 기록에도 남아 있고 문제가 많으나 옛집도 복원되고 동상이나 기념물도 세워졌습니다. 그런 농민전쟁 뿐 아니라 어떤 역사도 지도자들만이 싸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름은 있으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중이 노동과 투쟁으로 이루어 온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무명농민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등록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98명의 참여자와 10,563명의 유족, 그리고 3,146명의 참여자를 명예를 회복하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이름이 없는 분은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이름이 있었고 심지어는 둘, 셋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동학농민군의 이름을 찾아내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고창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대표적인 유적지는 전봉준 생가터, 정백현 생가터, 손화중 도소터, 손화중 피체지, 여시외봉, 선운사도솔암마애불, 무장기포지, 무장동헌과 읍성, 흥덕동헌, 고창읍성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유적지를 한꺼번에 성역화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유적지에 기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역사유적지의 가장 중요한 활용방안은 역사기행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시한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한꺼번에 성역화 할 수 없고, 동일한 수준으로 기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간적 계획을 가지고 정비되고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언급되지 않은 유적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고창에서는 무장기포 이후 백산까지의 농민군의 이동경로인 농민군 진격로를 새롭게 발굴하여 고창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유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발표자께서 제시한 유적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제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뿐만 아니라 전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논의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네스코는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발굴 및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을 체결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보호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 중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유산 9건, 자연유산 1건, 기록유산 12건, 인류무형유산 12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관련된 것은 판소리와 고창 고인돌, 진안의 매사냥,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왔던 조선왕조실록 등이 그것입니다. 잠정목록에는 강진도요지, 남한산성, 서남해안 갯벌, 염전, 대곡천악각화군,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중부내륙산성군,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외암마을, 낙안읍성, 우포늪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만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주교 관련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전주 전동성당, 익산 나바위성당, 정읍 신성공소, 진안 어은공소, 장수 수분공소, 완주 퇴재성당, 전주 치명자산 순교자 묘 등이 그 대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성서원을 비롯한 한국 대표적인 서원을 묶어 서원문화를 주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는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약 250개 정도의 관련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중 주요한 유적지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봉준고택(사적 293호), 황토현전적지(사적 295호), 백산성(사적 409호), 황룡전적지(사적 406호), 석대들전적지(사적 498호), 우금치전적지(사적 387호) 등이 있으며 말목장터(전라북도기념물 110호), 만석보터(전라북도기념물 33호), 고부관아터(전라북도기념물 122호), 목천 세성산전투지(충청남도기념물 105호), 풍암리전적지(강원도기념물 25호) 등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기준인 세계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문화유산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빠르게 추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과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은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변주승: 발표자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을 해주시고 각론에 대한 답변은 종합토론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성: 일단 문제제기한 점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합니다. 전두환을 같은 천안전씨라고 했는데, 전해들은 이야기를 검토하지 않고 써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발표문에서 ‘천안’을 빼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학농민혁명이 1984년 일년내내 전국 곳곳에서 전개된 사건이므로 고창, 정읍, 공주 같은 어느 한 지역에서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장은 기포지, 황토현이나 황룡강, 전주성은 승리의 전적지, 공주 우금치는 추모의 현장식으로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지역이 가지는 성격과 특성을 살려 기념사업을 벌이고, 그 특성들을 다시 전체와 연결시키면서 지역과 지역의 연대 정신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종합토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생가 복원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발 표 :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

토 론 : 남해경 (전북대 교수)

원도연 (전북발전연구원장)

사 회 : 변주승 (전주대 교수)

변주승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문병학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전북대에 계시는 남해경선생님과 전북발전연구원에 원도연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두 분 토론자께서는 한분당 5분이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구요. 발표자께서는 총평만 해주시고 각론에 대한 답변은 종합토론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경 : 본고는 문병학선생님의 “전봉준생가 복원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의 토론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의 수준이 매우 높고 내용이 훌륭하며 학문적 식견도 높아 토론보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건측적인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정읍 태인 동곡리, 정읍 덕천 시목리, 정읍 고부 조소리, 전주 구미리, 김제 원평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동학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여러 연구자들은 전봉준장군의 생가가 고창읍 죽림리 당촌이고 동학혁명의 출발지가 고창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지영의 『동학사』와 천안 전씨(天安 全氏) 족보인 『병술보(天安全氏世譜)』와 『임술보(天安全氏壬戌世譜)』 등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1855년 12월 3일 이 마을에서 서당 훈장을 하던 전창혁(全彰赫)의 아들로 태어나 13세 무렵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당시 서당과 안채, 사랑채가 있었다고 하나 동학농민혁명기간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봉준장군의 출생지가 고창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창군은 기념사업으로 2001년에 초가를 이전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전봉준생가를 복원하고, 2003년도에 동학로를 개설하는 등 생가마을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생가지에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초가집 안채와 행랑채 겸 창고 1동이 있으며 편의시설로 화장실,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봉준장군 생가의 복원과 활용방안은 전체적으로 문병학선생님의 발표내용과 같이 역사성과 사실에 입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것들은 집을 무조건 과대포장하고 형상화해가지고 사실과는 다른 유리적인 현상을 많이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게 진정성인데요. 문화유적의 복원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중시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즉, 문화유적은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봉준장군의 생가는 그가 태어난 1855년부터 13살까지 살았던 집으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해야 하고 아울러 집이 위치하고 있던 고창 지방 민가의 내용을 담아 지역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부친이 마을 서당의 훈장이었던 사회적인 내용 역시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구조에 있어서 초가집에 맞는 부재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구법과 재료 역시 초가집에 적합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원된 생가 건물은 발표자의 원고내용과 같이 철저하게 고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창지방의 민가건축은 고창지역의 기후와 환경 등의 영향으로 고창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의 부친이 마을 서당으로서 강학공간인 서당이 있었다는 내용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전라북도 민가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고창지방 역시 전라북도 지방의 일반적인 평야지방, 그리고 서민들의 주택은 대개가 3칸이었습니다. 부엌과 안방과 윗방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였고, 아까 선생님

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휴먼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9시뉴스나 청와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출입문을 보면 들어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문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젊은이들은 180c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50년생들이 170cm정도 되는데 이 당시 시대에서는 대개 통계를 보면 155cm에서 160cm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사람들이 이집에 들어가면 문높이가 낮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거기에 사는 사람하고 조화를 이뤄서 집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복원되는 집은 그러지 못하다는 걸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관문제인데요, 전봉준장군 생가는 현재 고창읍 죽림리 63번지 일원에 초가 1동과 행랑채 1동이 복원되어 있고 주변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죽림리는 고창지방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장군이 살았던 당시에도 농가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마을에 생가를 복원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틀로 농가마을이 있는 가운데 서당 훈장의 집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생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설치되어 있지만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마을에 동화되는 한 채의 초가집으로 복원하여 전체 마을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유적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가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마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사실적인 내용을 왜곡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원하면 문화재가 주변과 같이 살아 숨 쉬고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박제된 문화재로서 주변과 유리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관은 점적인 경관과 선적인 경관, 면적인 경관이 있지만 오늘날의 문화재경관 추세는 주변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생가의 복원에 그치지 말고 마을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존과 활용방안인데요, 이것은 유적지 연계방안이 되겠습니다.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이 관련되어 있는 고창의 유적지는 생가를 비롯하여 동학농민군이 복성한 길을 따라 설치된 동학로, 포고문을 공포하고 전국적인 농민항쟁에 나선 첫출발지인 무장기포지, 동학농민군 숙영지였던 왕제산자락(여시피), 손화중장군 도소지로 추정되는 성송면 괴치리, 손화중 대접주의 주요 활동 거점의 하나

로 알려진 성송면 양실마을, 손화중장군 피체지인 고창군 부안면 안현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유적들을 각각 성격에 따라서 보존할 문화유적지와 활용할 수 있는 유적지로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를 지나치게 보존에 치중하게 되면 이는 박제된 문화재가 되고 보존의 가치를 무시하고 진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활용하게 되면 이는 문화유적지의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발표자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보존할 문화재는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는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는 경관과 마찬가지로 점적인 문화재와 면적인 문화재가 존재합니다.

그리한 차원에서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화재를 연계하여 역사체험장은 물론이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창을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이나 민주화의 발상지로 부각시키는 것도 고창의 역사적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문화재 등재 추진인데 일단 전봉준장군의 생가가 고창읍 죽림리로 확인됨에 따라 전봉준장군의 생가터와 관련 유적이 문화재로 등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더욱 철저히 규명하고 정리하여 기록화하므로써 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80년대에 국가사적(사적 제293호)으로 지정된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의 고택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읍의 고택이 생가로 잘못 알려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 잡거나 명칭을 정정하여 고창의 생가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을 연계하여 문화재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창군의 위상과 군민의 역사적, 문화적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연 :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원도연입니다. 저는 문병학선생님 발표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문병학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달기보다는 조금 보태드

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전봉준장군 생가에 대한 기념방식의 핵심은 전봉준장군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공간은 이곳이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창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특히 정읍지역에도 많이 있고 전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 각각의 사건을 구성하는 현장과 유적은 충분히 기념되는데 그러다보니 오히려 전봉준장군 개인에 대한 정확한 조명과 이해를 돕는 유적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생가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인물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오늘 문병학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념사업을 위한 기념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전봉준장군의 생가가 앞에 박준성선생님의 발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이 됐습니다만 현재 너무 무계획적이고 어지럽다 이런 지적에 저도 100프로 동감합니다.

전봉준장군이라는 위대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토론문에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한국의 근대사에서 전봉준장군이 없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한국의 근대혁명에서 조선의 근대화, 그리고 민중들의 혁명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갔던 더군다나 일본의 치열한 회유와 협박을 이기고 의연히 죽음을 택한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그런분이 없었으면 얼마나 아절했겠습니까? 그런 분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허전하고 외롭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만한 위대한 죽음이 그시기에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전봉준장군의 죽음은 굉장히 값집니다. 그분에 대한 정확한 추모와 기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구요. 다만 그 죽음이 너무 지나치게 슬프고 비통하고 고통스럽게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전봉준장군도 원하지 않을겁니다. 그 죽음에 굉장히 당당하게 맞섰던걸 본다면 기념시설 방식이나 공간도 그런 방식처럼 당당하고 밝고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 본인으로서는 죽음이 고통스럽겠지만 후손들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문병학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통일성을 기하면서 숯대라던가 파랑새라던가 그런 메인 컨셉들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봉준장군을 파랑새같은 기념 상징으로 바꿔주면서 뭔가 자기 꿈을 쫓아가다가 그 꿈이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 그리고 민족사적인 순간

을 위해서 죽어갔던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파랑새라는 상징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파랑새는 사실은 상상속의 새잖습니까? 그런 상상속의 새를 현실화시켜 나가는 구조로서의 숯대, 숯대는 현실로서 우리 손에 잡히는 거니까 그렇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병학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제가 몇가지 걱정되는건 있습니다. 전봉준장군의 죽음은 하늘에 떠있는 대단한 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조의 죽음이었구요.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한테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상화되고 너무 신격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병학선생님은 메시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무 메시아적 느낌,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런 느낌으로 가는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인데 너무 자랑스런 우리 할아버지,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살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상태는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전봉준장군을 기념하는건 우리지역에서 전라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부끄러운 일이고 고창도 이건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문병학선생님이 제시했던 이런 그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루어지되 숯대라던가 파랑새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를 이으면서 여기서 전봉준장군 개인에 대한 정확한 공부가 될 수 있고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느끼는 공간이 될 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유적 설명을 막 씩니다. 막 써서 사람들이 읽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읽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주는 느낌과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통해서 전봉준장군을 알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하기 보다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전봉준장군에 대한 기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두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통일적인 주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물관을 짓고 이번에는 생가를 짓고 이번에는 외양간을 짓고 이런식으로 가는건 곤란합니다. 그렇게 갈려면 차라리 돈을 아껴서 기금을 만들었다가 이걸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가는게 좋

지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한다기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주체를 세울수 있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적 관점으로 이루어 질수 있게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문병학선생님이 발표에서도 좋은 그림이 나왔고 박준성선생님도 재밌는 제안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루어질려면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아시지만 올해 학술대회를 합니다만 내년도에 고창군의 예산에서 이사업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라북도에서 이사업을 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이 지난 다음 이후에 동학농민혁명특별법이 만들어졌구요. 그런데 그 특별법 이후에 마땅한 계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예산을 따서 하는 사업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중요성을 알지만 예산을 못만들어 내는 그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라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건 아닌데 계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위해서 뭔가 국가적 예산을 타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정읍, 고창지역의 많은 군민들이 또 관련유적이 많이 있는 정읍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대선기간에 뭔가 조직적인 힘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유적지를 이대로 나둘 수 없다는 청원운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창군 공무원들에게만 맡길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과 고창군이 같이 또 전라북도와 정읍시와 김제시와 전주시가 같이 합치면서 전국의 유족단체들이 모이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을 마지막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여러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요. 왜냐하면 많이 커지고 높게 짓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 의미에 걸맞는 단정함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정함이 없거든요.

그런 단정함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에 총선과 대선에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을 하셔서 재정사업을 확보 해야 그래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현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끼리 한 얘기로 끝나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

습니다.

변주승: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총평해 주시구요. 각론에 대해서는 종합토론시간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학: 두 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전적으로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원도연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고민할 것들 고민하고 여기서 추가할 것들은 추가하고 그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지 기념시설과 향후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발 표 : 배승현 (구상조각회 운영위원)

토 론 : 신안준 (충청대 교수)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사 회 : 변주승 (전주대 교수)

변주승: 수고하셨습니다. 배승현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충청대의 신안준선생님과 동국대에 조재곤교수님의 토론이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두분 토론자께서는 한분당 5분씩정도 토론을 해주시구요. 발표자께서는 총평을 하시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종합토론이 이어질겁니다. 못나누신 말씀은 종합토론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준: 안녕하세요. 충청대학교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안준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잘 들었구요. 저는 강론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신 분이 시청각 사진자료를 통해 많은 내용 지적을 해주셨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대부분이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고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기존의 세워진 조형물이라던가 기념시설이 단지 보여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적 유적지 특히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던가 생기터라던가 이런 장소는 단지 거기에서 나타난 보여지는 사실보다는 역사적 사실, 전통성이라던가 장소성 이런것들이 중심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것에 집착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저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역사적 장소와 조형물에서는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

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만화라던가 시청각자료를 따라갈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런 시청각자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 효율성이라던가 직접적인 효과에 비하면 저희가 역사적 장소라던가 조형물은 그에 비해서는 우리 순례자라던가 답사자들이 그 장소를 경험하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방식, 표현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기존에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무한적으로 재생하고 다시 복사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장소라던가 조형물이 가질 수 있는 추상성, 생각할 수 있는 사유, 이러한 것들을 내포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흔히 구체적인 예로서는 워싱턴에 있는 베트남참전용사비라던가 또는 한국참전용사기념공원이 있습니다. 또는 유대인박물관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유대인박물관 같은 경우는 역사시설에서 평가를 하자면 유대인이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념시설에 가보게 되면은 핍박과 박해를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들이 그 당시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얼마나 불안해 했고 그러한 위기감과 공포감을 얼마나 느꼈을까 하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념시설이라던가 역사시설을 가본 사람은 유대인이라던가 민족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고 얼마나 불안해 했던 심리적 상태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재생하고 반복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이러한 기념물이라던가 장소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동학농민혁명기념시설 대부분이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는 사람 느끼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측면을 많이 비춰질 수밖에 없구요. 특히나 저희처럼 동학농민혁명을 알고 역사적으로 많이 접했던 세대와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기념시설들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념물을 세우고 만드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우리가 느꼈던 바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법과 시각엔 저희와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세대는 미디어 세대이고 디지털 세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까지 해왔던 비문, 비각, 거기에 뿔뿔이 채워진 그림, 글씨 이런것들은 그들에게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의 왜곡된 모습을 전달해 주고 그릇된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정읍이라던가 공주, 전주, 삼례 이런지역에서 많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행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로인한 부정적인 측면이 바로 이런 지나친 과욕과 역사적 사실에 재생 반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창군 같은 경우는 다행이 시작된게 있지만 그러한 측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넓은 측면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젊은세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것 보다는 젊은세대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바탕과 여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여유있고 조급하지 않은 추진방식과 사고방식을 가져주시길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곤: 저는 전공이 한국 근대사로 기념시설의 구체적인 구조와 배열 등에 관해서는 문의한 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점을 두서없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첫 번째 발표자께서는 ‘무장기포지’ 용어의 어려움 지적하면서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무장기포 기념공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방안이나 일반인들에게는 ‘기포(起包)’라는 용어가 너무 생소한 관계로 ‘무장선언문 낭독지(혹은 발표지)’라고 명명하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는 ‘농민군 발자국(죤신) 새김의 첩편석’(「도5」)을 시안과 함께 기념시설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르지만 독일 베를린 유대인박물관에는 철구조의 얼굴조각을 설치하여 밟고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장승과 솟대를 병렬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솟대는 우리나라 기념시설에서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른 지방에서 다른 의미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러기나 오리로 비정되는 솟대를 통해 파랑새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기 보다는 파랑새 고유의 의미를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6」의 제안 그림에서 특히 장승 머리 위에 솟대가 서 있는 것은 모양은 다소 생경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번째는 '무장(茂長)'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많은 사업 시안에서도 나와 있듯이 무장기포지는 본격적인 동학농민군 봉기의 첫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지역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농민군의 염원의 집성, 그 호수를 통한 분출, 확산의 연속성 즉, 계승의 문제가 부각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점은 이 지역이 몇 년 후 영학당(홍덕민란) 무대로 다시 등장하기에 가능한 일이므로 이 문제도 아울러 크게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역사 자료에 의하여 기념시설을 상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① 보국안민 창 의 깃발, ② 말을 타거나 걸어서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며, 북을 두드리고 총을 쏘아대며 진군한 사실, ③ 손화중 대장이 고창의 백정, 재인(광대), 역부, 대장장이, 승려들로 강력한 농민군 접을 만든 사실, ④ 무장 농민군 행렬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부녀자, 아이들 그리고 가재도구들까지 지고 나갔다는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史實)에서 잘 보이듯이 신명나는 장터와 그곳에서 농민들이 더불어 활동하는 공간의 역동적 이미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민중적 성격을 부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군과는 다소 생소한 숫대와 장승 보다는 녹두와 녹두꽃 이미지는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겠지만 녹두는 '해열과 해독' 작용, 녹두꽃은 전봉준 또는 민중으로 대표되는 한과 아쉬움 등등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무장포고문 선언서 낭독 시연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미래의 전망이 필요합니다. 기억의 망각에 의해 잊혀 가는 동학농민군들의 값진 희생은 평등사회 구현 의지의 대발로로, 고창군 무장지역의 로컬리즘과 동학농민혁명이 지향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유기적 연관성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상징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지적되는 것이지만 현지 사정에 의해서 조성 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종합토론

토론좌장

배형섭 (성균관대 교수)

1894

일시 : 2011년 11월 4일(금) 17:00

장소 : 고창 청소년 수련관 내 청소년극장

토론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

남해경 (전북대 교수)

배승현 (구상조각회 운영위원)

신안준 (충청대 교수)

조재곤 (동국대 연구교수)

배항섭 : 곧바로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토론에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에 배항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일곱 번째 학술대회가 되는데요, 고창군에서 이번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창군에서 일곱 번에 걸쳐서 꾸준히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고창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의 현황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세분이 하셨는데, 첫 번째는 박준성선생님께서 고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중요한 기념시설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형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문병학선생님이 전봉준 생가가 복원되어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재정비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조각하시는 배승현선생님께서 무장기포지의 기념시설들의 현황도 소개하시고, 특히 앞으로 그 무장기포지를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토론자들이 질문만 있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종합토론은 주어진 시간이 한 50여분정도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분 발표 선생님들이 토론자 선생님들 받았던 질문들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세분 선생님께 듣고, 그 다음에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고창 지역에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될만한 각자의 의견들 몇 가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조금 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들어보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표해주신 박준성선생님께서, 이병규선생님이 질문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별히 많이 길게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안하신 내용이 황토재의 위치에 대해

서 그동안에 잘못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운 그런 위치를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확인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두환 전대통령이 천안 전씨가 아니라, 완산 전씨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 하셨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3분 안으로 해주십시오.

박준성 : 천안 전씨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같은 전씨라도 더 들어가면 천안 전씨와 완산 전씨로 나뉘어진다고 지적해 주신 것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는 황토재 위치는, 고개나 재는 산과 산이 이어지는 마루금에서 전통지리 인식 체계인 ‘山自分水嶺’의 물을 가르는 한 지점이며, 사람이 넘나들기 편한 낮은 곳에 자리 잡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념탑이 있는 곳은 산줄기에서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이에요. 거기가 고개가 있던 곳이 아니라는 거지요.

옛날 노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현식 선생님이나 이이화선생님이 전해준 말씀으로는 지금은 양쪽에 복토가 되어 고개 같은 느낌이 덜 들지만, 기념탑 있는 곳에서 기념관 뒤쪽 산 사이의 낮은 곳이 고개였다고 해요. 기념탑 세워진 꼭대기가 고개는 아니라는 얘지요.

배항섭 : 감사합니다. 이병규선생님이 질문 다른 질문 있으시겠지만 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추가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 시간에도 일부 순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찰 같은 경우에 신라시대다, 고려시대다,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중건이 되고 복원이 된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잘 안됐기 때문에 오해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황토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위치가 원래에는 어디에 있었는데 여기에 세웠다는 이런 점들이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적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지적해주신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가 복원해놓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은 언제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고증을 거쳐서 복원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판 같은 데 밝혀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하신 문병학선생님에 대해서는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남해경선생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이랄까 보완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고, 두 번째 원도연선생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문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전봉준생가를 복원하는 데 그 복원을 하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한 무장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메시아의 고향이다. 이런 어떤 것을 붙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상징물로 파랑새라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도연선생님은 메시아라는 어떤 표현이 너무나 좀 개인에 대한 지나친 숭배에 그런 뉘앙스를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재고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문선생님이 표현하기에는 메시아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희망이라든가 의지, 신념, 이런 것이 있습니까라는 어쨌든 메시아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죠. 그 말에 어떤 의미, 분위기가 좀 지나친 것이 아닌 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학: 원도연위원장님 토론하시고 일 때문에 먼저 전주로 올라가셨는데, 위원장님이 전봉준생가 기념사업이 자칫 영웅화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하셨는데 충분히 우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오년의 농민전쟁은 전봉준장군의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농민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문에서 전봉준생가를 메시아로 고향으로 상징화하자고 하니 이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가마을을 메시아로 상징화하자고 한 것은 전봉준을 영웅화하지는 것에 방점을 둔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위상, 즉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메시아적 역할을 수행했고, 그때의 시대정신들이 아직까지도 연결된 측면이 많은데,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가 세계 도처를 휩쓸면서 문제를 야기시켜 인류사에 또 다른 문명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전봉준생가마을을 기념사업하는 것에 상징적으로 연계시켜보자는 것에 방점을 둔 내용입니다.

배항섭: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들 잘 지켜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주신 무장기포지 관련한 배승현선 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특히 신안준선생님하고 조재곤선생님 두 분이 질문을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안준선생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주신것 같고, 조재곤선생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일일이 다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떨까요, 이 숯대와 관련한,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넘겼는데, 종합토론으로.

숯대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그 의미, 지금까지 조재곤선생님의 녹두꽃이라든가, 녹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민군 발자국이라든가, 그러죠? 농민발자국에 대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이게 지금 예를 든 것은 독일 베를린 유대인박물관인데요. 거기에 있는 어떤 부분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기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식을 했던 의식을 하지 않았던 이미 어느 나라인가, 혹은 국내에서도 다른 어디인가는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개 정도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승현: 조교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애정을 갖고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녹두꽃이라든가 독도라든가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에 저는 논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하면 떠오르는 그 형상이나 이미지가 아직 저희들도 없고 일반인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동학농민혁명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도회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승이 어찌면 동학농민혁명의 이미지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선점해서, 남들이 다른 재단이나 어떤 데에서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동학농민군과 장승과 마을 수호와 이런 이미지들, 설령 좀 다른 데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고창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동학농민혁명 성지중에 이곳은 동학농민혁명기념성지입니다. 농민군 표시물을 장승 형태로 만들어서 제 논문에 표현한 것처럼, 그걸 세웠으면 하는 동학농민혁명 이미지화 시켜서 일반인들에게 학생들에게 누

구나 동학농민혁명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뭐 또 신앙적으로 또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장승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좋다. 그건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경치가 있고 좋은 꽃이 있으면 사진 찍으러 전국 사진동호인들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절초나 진달래꽃 같은걸로 아주 전체 공원을 장식을 해버리면 그 꽃이 많으니까 꽃철에는 사진을 찍으러라도 사람들이 와서 그 공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조각가들이 예를 들어서 박준성선생님이 지적하신 조형물들을 설치했을 때 조각가들은 우리나라에 몇 분들이 안계셨어요. 미술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고, 조각가는 특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능이 있던 없던 간에 국가적 사업을 그분들이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소 좀 무리한 답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각 대학마다 미술대학이 생겨가지고 뭐 그냥 1년에 몇 천 명이 조각가가 나와요. 조각가만. 미술가가 아니고 조각가만.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재능은 있는 데 과연 이걸 뽑아주는 사람들이 안목이 없어요. 좋은 작품이 나왔는데도 좋은 작품을 뽑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동네일인데 우리 동네 사람이 해야지 외지에서 뭐하러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짜리인데 이걸 가져다 쓰겠느냐, 세금을 내도 우리 동네에다 내야지 이게, 필요 없다. 남이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다. 내이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심사를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하고 동네 의원들하고 문화관광 과장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은 형식적으로 초대합니다. 이걸 보여주자는 사람들 한두 명 초대가지고 ‘아~ 이야기 하지 말고 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5대 2가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네 이장이 와서 딱 손들어버립니다, 한 표,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작품을 뽑아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저희들이 준비할 때 한 달 두 달 세달 잠안자고 돈을 막 5백만원, 천만원 드려서 준비하는데 엉터리 작품을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공부도 않고, 조형이 뭔지, 예술이 뭔지, 기념조형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나도 봐야지만 우리 후손도 봐야 되고 외부에서도 와서 봐야 되고, 통일되면 북한 학자들도 와서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아는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너무 적은 예산으로 너무 시간을 조금 줘요. 그러니까 두 달 안에 다 해라 이거야. 우리 뭐 12월 되기 전에 다해야 돼. 그러니까 환장해. 이거 뭐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돌 깎는 시간도 모자라는 거예요. 겨울에 준공 기초공사 하느라고 얼고 막 난로펴가면서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고, 시간을 안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삼례 공원에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 후손들한테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군에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냐면, 제가 농민군 손을 들고 거대한 포크 쇠스랑을 들었어요. 여기 돌들이 쌓여요, 돌들이. 이게 10미터가 넘어요, 이 손이. 그런데 저는 이 돌이 여러분들이 그 동네 부임하는 군수나 시장이나 교육장이나 교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나 이 동네 와서 이 농민군의 성지에, 동학의 성지에 왔으니까 내가 탐관오리처럼 행동하지 않고 뇌물 안 먹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돌을 자기 이름 새겨가지고 몇 대 군수 누구 해가지고, 저 요즘에 새로 입대하는 동학군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정성을 다해서 농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사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나도 동학군이 되어가지고 나도 동학군이다. 내 이름 적어서 놓았으니까 나를 대신한 돌을 놓았으니까 동학군이 되어서, 그 공원이 다른 조형물이나 광장이나 잔디밭이나 다 없어지고 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이산 보다 더 큰 돌산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박준성선생님이 예시한 어떤 조형물이 낙석으로 가라앉듯이 그 시내 전체가 거대한 돌산이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조형물이 되겠냐 이말이에요,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학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것을 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돌을 쌓을 수 있게 옆에다 놓고, 먹을 놓든지 펜을 놓든지 놓아서 군수나 그때 그 현재 동학기념사업회 회장이나 총무, 자기 이름을 써서 갖다 놓아야죠. 전라북도에 있는 동학기념사업회 사람들도 다녀와야 되고, 나도 동학군이다 이거여. 동학농민혁명으로 밥 먹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가서 자기가 동학군으로 참여도 않는단 말이에요, 돌 하나 안

갖다놓는다 이거예요, 무겁다는 이유로. 나는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산이 되기를 바라는데 군에서 관리를 얹는 거예요, 관리를. 내가 그렇게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줬건만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작품을, 그 전체 공원을 제가 설계했는데 배선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공원 전체계획을. 제가 가서 그렇게 화를 내면 듣기 싫다 이거지, 듣기 싫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안을 냈어도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이게 뭐냐면, 군에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명소가 되고 명소가 안 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장내박수)

배항섭 :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다음 순서로 돌아가면서 기념사업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원칙, 그다음에 추진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분씩 제가 여쭙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배선생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굉장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기념시설이라든지 여기 발표문에서도 몇 분이 지적했습니다만는 그냥 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기념사업, 무의미한, 그냥 무슨 콘크리트 덩어리라든가 돌덩어리를 하나 갖다놓고마는 방식의 기념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념사업이 배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가서 저도 아직 돌을 못 갖다 댔는데, 제가 이번에 삼례에 11월에 한번 가는 데 그때 꼭 하나 갖다놓고 매직으로 써서라도 제가 갖다 놓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아주 굉장히 참 아주 뭐랄까요, 아주 상당히 웅대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그 작품을 설계하시고 공원을 조성하셨는데, 정말로 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 한분씩 가는 사람마다 다 돌덩어리를 갖다놓고해서 그곳이 정말로 삼례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것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죠.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기념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오늘 주제도 그렇습니다만는 이제 구체적으로 고창군에서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음을 먹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해결이 되어야 겠습니다만는, 그래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오늘 얘기를 꼭 들 어봤을 때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기념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동학농민혁명에 어떤 성격을 어떻게 기준을 할 것이나, 이런 것들, 미래지향적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라는 큰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것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신안준선생님이 토론문에도 작성하시고 정작 토론 시간에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셨는데, 지금 배승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진방식입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 이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간계획도 포함이 되고 재정운영 계획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분 한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하신 이병규선생님이 이것하고 직 접 관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학농민혁명 관련시설물들, 유적지들 이런 부분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는 것이 어떻 겠느냐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어떤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길지 않게 다시 한 번 선생님의 입장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아까 토론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 니다. 그리고 유적지가 전라도만 정읍, 고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 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재하는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 업들을 하게 되는데, 연구도 더 활발해질거고, 또 국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국가문화재나 또는 지방문화재로 등재하는 작업에 기초가 되어야 될거 고, 그러면 전 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전체 유적지가 하나의 플랜을 가지고 정비하게 되는 그런 결 과를 가져오게 될거고, 그런 바탕을 토대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과 관 련된 기관들이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혁 명기념재단과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념사업회가 하나의 조직, 또는 기구를 만들 어서 전반적으로 기구를 세우고,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그걸 대략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나간다면, 그리고 추

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적지가 정비되고 또 문화재가 등록이 되고 그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또 그것을 통해서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세계화하는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미 동학농민혁명이 정읍, 고창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그것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는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항섭 : 감사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재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 하에 유적지에 대한 관리, 기념시설물들의 조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처장님 계십니다마는 동학농민기념재단의 역할이 앞으로 더 상당히 좀 더 많이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정도로 듣고요,

그다음에 남해경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해서 주민소득의 하나의 점도 겸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하셨고, 또 문화재 등록과 관련해서도 세계유적지가 아니라 지역단위 특히 고창지역 같은 경우 몇 가지 유적이라든가 기념시설물을 같이 묶어서 사적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등재하는 것이 어떻냐, 이런 방안도 말씀해주셨는데, 한번 그것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념사업의 방법, 방식 이렇게 결들여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해경 : 제가 드렸던 말씀은 각론적인 얘기였던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문화유적의 복원을 하면서 너무 과장되거나 너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잘못 다룬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전봉준생가 부분은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을 연계 해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마스터플랜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다 돈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병학선생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나 아니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투박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물을 영원한 우상으로 가능하지만 유적이라는 것은 사실성과 역사성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봉준장군 생가는 제가 연구한바 있는 고창 지방의 전형적인 민가 양식이고, 그 다음에 전봉준장군이 살았던 어렸을 때의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융합할 수 있다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역사적인 고증을 철저히 거친다면 다른 문화유적에서 복원할 때 벌어진 그런 누를 전봉준생가에서는 피하리라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항섭: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안준선생님 아까 토론물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관료적회의 오늘 고창 군수님도 아까, 지금 안계십니다만은 와계셨는데 고창군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기념사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번쯤 와서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신안준: 제가 이런 기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나친 관료성입니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있고 행정조직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창군 같은 경우에 고창군 지역특성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모든 것을 주도해야겠다는 과욕으로 이어지면서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가 되고 이러면서 계획이라든가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창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독창성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도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데, 이렇게 되게 되면 지나친 관료성이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기념사업이 하고자 했던 방향성이라든가 독창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제가 공

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담당자분들을 뭐 폼하하거나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사업들 대부분이 공무원이라든가 행정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독단 또는 근시한적인 시각 때문에 망쳐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워지는 기념조형물이라든가 기념시설 대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답습한다든가 아니면 반복적인 재생산에 머물 수 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관, 또는 행정조직은 중재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걸 주도하고 자기가 결정짓고 마무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관계전문가라든가 지역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에서 그 역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창동학농민혁명토론회에 두 번째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제가 3, 4년 전에 한번 와서 그 당시에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또는 참여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고창군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있구나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와서 내심 또 놀랜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4년, 3년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토론회 자체도 생산성이 있기보다는 반복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토론회가 있었고 2008년에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이 있다면 그동안에 저는 구체화가 되고 실현이 됐다라고 저는 내심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의 반복적인 측면이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창군에서는 관료성이 배재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다소 다른 측면에서는 추진성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담당자나 공무원들은 이 전담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이 사업의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은 전문가들의 힘이라든가 자문을 통해서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심사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을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이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포함될 경우에 어느 한 분야에 주도되는 분야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각가가 되든지, 아니면 건축, 토목, 환경, 또는 역사, 이런 또는 지역,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고른 의견과 이런 의견

의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다른 지역에 사업에 사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라든가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의 소모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실행할 경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제도의 도입입니다. 어느 특정인사, 어느 지역, 학연, 이런 특정한 연결 관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담담자를 정하는 것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독창적이고 아주 특정, 특수한 안이 제출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구체화 될 수 있는 동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이 제가 제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그동안 건축물 같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도 요즘 대부분 현상설계라는 공모제를 통해서 더 좋은 작품, 또는 더 나가서 더 나은 경제적인 여력, 즉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사후유지 관련 방안까지 고려한 작품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고창 지역 전체의 관심사일 뿐만이 아니라 고창 군민 모두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위원회 조직을 통해서 공모제도를 통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추진 절차와 결과, 결정 과정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도 있구요, 후에 그로인한 불필요한 논쟁이라든가 비난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또는 이런 추진절차들은 이미 다른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예를 들면 전봉준생가라든가 무장기포지 또는 여시포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항섭: 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아무것도 안하면 욕도 안 얻어먹고 말하자면 본전치기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를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이런저런 애기들, 칭찬을 듣기도 하지만 역시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의견들이 있고 불만도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배승현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아주 촉박하게 정해놓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 이것이 줄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분개를 가지고, 신안준선생님은 고창의 경우에는 너무 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는데, 어쨌든 고창군이 지금 신안준선생님 말씀대로 하

나의 중재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기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졸속으로 처리해서 아주 문제가 있는 이런 기념물들을 만드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올바른 것을 제대로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창군은 정말로 제대로 된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안드린분들인데 제일 먼저 발표해주신 박준성선생님께서 기념사업, 아까 말씀드린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추진방식, 혹은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말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념사업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죠. 어떤 것이 미래지향적이나,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성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이 1894년 일어난 후로 여러 가지 성격교정이 있어왔습니다. 계속 변해 왔고 앞으로 변해나갈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기념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삶, 인류의 삶의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 중에 빠진 것이 기념사업을 할 때 그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의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생각들, 그 기념사업을 하고 그 기념사업의 결과, 기념물이나 기념시설물 등등 시설들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향유할 사람들은 미래세대더라는 이런 것들 관점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박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박준성 :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지향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형물을 검토하고 분석할 때 평가 기준도 그렇고, 동학농민혁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나 보편적인 가치의 핵심은 신분제의 수직적 인간관계 질서를 깨트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들을 실천을 통해서 평등세상으로 실현해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념사업이나 조형물들도 수평적이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염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가치가 제

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창에서 기념사업을 해 나갈 때 수평적이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추구했던 농민군들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인다면 모든 역사 현장이 모두 유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야 역사유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역사 현장은 역사기행의 현장이 될 때 유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기행으로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배항섭: 감사합니다. 문병학선생님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요.
조재곤선생님

조재곤: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본건 배승현선생님 무장기포 조성방안인데, 무장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나, 굉장히 농민군의 활동이 관군과 일본군에 패배하고 뭔가 그런 우울한 분위기의 그런 조성보다는 무장기포와 황토현만큼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동적이고, 장터의 사람들이 놓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역사 사실에서도 여기에 보면 천민, 농민군의 유명한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청중1: 홍낙관

조재곤: 예. 홍낙관. 홍낙관하면 굉장히 큰 접주로서 나중에 일본군에 끌려가고 그러는 데, 그 와중에 빠져나오는 어떻게 보면 광대 기질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광대로서,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역사의 유래가 창 의 고향이고, 그런데 이런 창과 놀이문화, 그리고 민중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고창이고, 고창에서도 무장지역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형상화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무장기포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저도 잘 못해봤지만, 바스티유라든지 미국에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문제 뭐, 중국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 데, 중국은 태평천국이 광둥에서 출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남경에 가서는 좀 후기 사항이 또 잘 드러나타났지만 그런 모습들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보면 뭔가 그것을 아주 작은 것들을, 특히 고창이라는 지역은 여러 가지를 닿을 수 있다. 역사적 사실부터 고대사회 예전에 고인돌 시대에서 강화도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시작돼서 또 근현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역사 문화유적을 보고 느끼고 즐기고, 또 그것을 또 음식문화까지 재현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무장이라든지 전봉준생이라든지 이런 한두 개에 따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시켜서 뭔가 만들면 충분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또 그게 사업성이라든지 뭐 미래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장기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항섭: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어떤 분이 발표하실 때 전국에 확인된 유적지가 250여 곳 된다. 제가 요즘에 재단에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유적지를 조사하는 데 제가 확인하는 것만 해도 좀 의미 있는, 이런 어떤 문헌자료에 확인이 되는 이런 유적지만 하더라도 한 400여 곳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적지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보는데 보니까 기념시설이라든가 기념사업이 진행되어서 어떤 지역적 차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재곤선생님 말씀은 고창은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이다라는 이런 점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역동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기념사업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시간이 한 10여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지금 발표자나 토론하신 분 쪽에서 혹시 추가로 꼭 이 한 말씀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면 장시간 지금 오늘 4시간째 청중석에 앉으셔가지고 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청중석에서 발표자나 토론자 어떤 분한테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내용이라든지 혹시 나름대로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청중1: 예. 고창기념사업회의 진윤식입니다. 여러 선생님 한분한분 정말로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가있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병학선생님하고 배승현선생님께서 파랑새 메시아 더붙어서 솥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솥대의 새는 같은 파랑새라고 해서 새는 새지만 솥대의 새는 아까 말씀하신 기러기입니다. 기러기의 방향은 북쪽이거든요. 그리고 북쪽은 지금 우리 먼~ 조상들의 옛 고향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북망산천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나간 모태로 다시 돌아가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아까 조재곤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파랑새 메시아 파랑새하고 솥대에 나오는 기러기하고는 같은 새라고 해도 의미는 전혀 상반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솥대의 기러기 부분은 우리 고창 동학농민혁명과는 매치가 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까 배승현선생님께서 기포지의 장소가 협소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 동안 기념사업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 무장기포지에는 무엇이 어울릴까하는 것을 저도 수없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출한 결론은 바로 죽창이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넓은 들판에 약간의 구름도 있으면서 거기에 수 없는 죽창이, 요새 말하자면 낫대 같은 것 그런 것을 만들어서 뾰다 박았다 할 수 있는, 제초작업 같은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뾰다 박았다 할 수 있도록 하게 죽창이 넓은 들에 천기고 이천기고 짹~허니 서있고 앞에 전봉준, 손화중이라든가 송문수라든가 하는 지도부의 죽창 앞에 몇 개 있고 나머지 짹~ 하니 구름으로 넓혀져서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이라든가 외국에 경우처럼 우리도 그런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한테 같이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신안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 저도 여러 차례 누차 얘기한바 있고 그러거든요. 비록 일은 행정적으로 추진해갈지라도 논의과정은 우리 일반인들, 우리 기념사업에 관여하는 분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진행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하는 아주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항섭 : 감사합니다. 진선생님은 다들 잘아다시피 고창지역에서 동학농민기념사업 관련해서 오랫동안 애를 써오신 분입니다.

아마 앞으로 기념사업 해나가는 데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청중 2 : 안녕하세요? 신림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용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적지, 어떤 시설하는 것보다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역사적 사실 관계부터 확인한 뒤에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왔거든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요.

오늘 발표 중에 황토의 문제랄지, 전봉준생가의 사당 위치랄지, 또 동학군에 부녀자가 포함되어있었다는 그런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실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이런 사실 관계를 밑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창군 무장기포지에서 고창군 경계를 벗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스토리텔링이라도 완성한 뒤에 전체적 구성, 전체적인 구조를 봐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연결시켜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동학군이 야영하면서 술단지 걸었던 한자리까지라도 얘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부분부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봉준생가에 있는 숯대, 기포지에 숯대와 장승이 나오고 또 파랑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중복된 시설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런 시점에서 아까 전봉준 생가는 36억, 이런 말씀드리면 관료적인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포지에는 33억 정도 예산을 투입되어야 한다고 대략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것부터 한 뒤에 통일된 고창 통일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고창군을 돌면서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항섭 : 예, 감사합니다. 고창군에서도 스토리텔링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발표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념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꾸준히 계속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청중 3: 고창군 유족회장 김용선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진지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탐방하면서 느낀 것인데, 교수님들이 여지껏 다 지적하셨지만, 하여튼 전봉준 고택이라든가 유적지를 가면 너무 획일적인 그 모습들이 정말 눈에 거슬리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위치입니다. 이런 정도면 좋은 집에 살았다. 그리고 너무 반듯하고 좋은 나무로 집을 짓고 크고, 교수님들이 여럿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든, 또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는 분들은 즉, 내가 하는 지금의 행위가 후대에는 문화유산이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항섭: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신 분 조금 있다 끝나고 개별적으로 또 의견을 나누시기 바라고,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창군에서 주최하는 일곱 번째 학술대회입니다.

신안준선생님께서서는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발표가 이와 관련된 지역 단위별 기념사업과 관련된 학술대회를 쭉 다녀봤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내용이 상당히 가장 알찬 그런 학술대회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해나가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고 시사받는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가운데에서도 몇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고창은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곳이고, 또 전봉준장군이라든가 손화중장군이 태어나고 또 활동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고, 또 충분한 역사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창지역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념사업을 정말로 알차게 일으켜나간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까 박준성선생님은 고창이 역사기행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고창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역사기행을 하는 데도 핵심적인 위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학술대회,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실히 거쳐가지고 말 그대로 고창지

역의 기념사업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결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동학농민혁명 지역연구 1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발행일 : 2011년 12월

발 행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이사장 김영석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하학리 산8)

Tel. 063-538-2894 / Fax. 063-538-2893

www.1894.or.kr

고창군 | 군수 이강수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Tel. 063-560-2462 / Fax. 063-560-2469

www.gochang.go.kr

총 괄 : 이용이 (사무처장)

기 획 :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김현기 (고창군 문화관광과장)

진 행 : 박일규 (연구조사부)

이영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담당)

박석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담당자)

디자인 : 흥디자인 063-241-8082

I S B N : 978-89-94580-13-5

발행처의 승인 없이는 본서의 무단복제를 금함(비매품)

